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VIP(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경제권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in VIP(Vietnam·Indonesia·Philippines) Economic Bloc



2017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金台禧

本 論文을 金台禧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俞 日 善

委 員 鄭 鴻 悅

委 員 金 在 棒



2017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3절 논문의 구성	6
제2장 VIP 경제권 현황	7
제1절 개요	7
1. 브릭스(BRICs) 경제권의 추락	8
2. VIP 경제권의 부상	10
제2절 VIP 경제권의 주목 요인	13
1. 풍부한 노동력	13
2. 풍족한 자원 매장량	14
3.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	15
4. 도시화 진전과 인프라 수요 증대	16
5. 외자 유치 증대	16
제3절 VIP 경제권 국가별 현황	17
1. 베트남(Vietnam)	17
1.1 특징	17
1.2 무역현황	20
2. 인도네시아(Indonesia)	22
2.1 특징	22
2.2 무역현황	26

3. 필리핀(Philippines)	28
3.1 특징	28
3.2 무역현황	30
제3장 VIP 경제권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 분석	32
제1절 선행연구	32
제2절 수출경쟁력 분석방법	34
1. 국제시장점유율(IMS)	35
2. 무역특화지수(TSI)	37
3.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39
제3절 수출경쟁력 추이 분석	42
1. 국제시장점유율(IMS) 추이 분석	42
2. 무역특화지수(TSI) 추이 분석	53
3.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추이 분석	64
제4절 수출경쟁력 분석결과	74
1. 국제시장점유율(IMS) 분석결과	74
2. 무역특화지수(TSI) 분석결과	77
3.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분석결과	80
제4장 요약 및 결론	83
참고문헌	88
부 록	92

〈표 목 차〉

표 2-1. VIP 경제권 국가 정보	7
표 2-2. 경제성장률 변화 비교 (2011~2015년)	10
표 2-3. 인구 통계 비교	11
표 2-4. VIP 국가 인프라 순위	11
표 2-5. VIP 경제권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13
표 2-6. VIP 국가 주요 자원 매장량	14
표 2-7. 베트남 경제지표	17
표 2-8. 베트남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18
표 2-9. 주요 국가별 중위 연령	18
표 2-10. 베트남 국내총생산	19
표 2-11. 베트남 1인당 국내총생산	19
표 2-12. 베트남 도시화율	20
표 2-13. 한국과 베트남 수출입 동향	20
표 2-14. 한국의 국가별·연도별 수출실적 추이	21
표 2-15. 인도네시아 경제지표	22
표 2-16. 인도네시아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23
표 2-17. 연도별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23
표 2-18.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	24
표 2-19. 인도네시아 1인당 국내총생산	24
표 2-20. 인도네시아 주요 천연자원 생산량, 매장량	25
표 2-21. 인도네시아 도시화율	25
표 2-22.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26
표 2-23. 인도네시아 5대 수입국	27

표 2-24. 필리핀 경제지표	28
표 2-25. 필리핀 국내총생산	28
표 2-26. 필리핀 1인당 국내총생산	29
표 2-27. 필리핀 소득 계층별 인구 규모	29
표 2-28. 필리핀 수출입 동향 (최근 3개년)	31
표 3-1. VIP 경제권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2000년부터)	44
표 3-2.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2000년부터)	46
표 3-3.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2000년부터)	48
표 3-4. 필리핀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2000년부터)	52
표 3-5. 해당 시장에서 전체 상품 무역에 대한 한국의 TSI(2000년부터) ..	54
표 3-6. VIP 경제권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2000년부터)	56
표 3-7. 베트남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2000년부터)	58
표 3-8. 인도네시아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2000년부터)	60
표 3-9. 필리핀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2000년부터)	62
표 3-10. VIP 경제권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2000년부터)	66
표 3-11. 베트남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2000년부터)	68
표 3-12. 인도네시아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2000년부터)	70
표 3-13. 필리핀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2000년부터)	72
표 3-14. 해당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최근 3년 평균 IMS	75
표 3-15. 해당 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최근 3년 평균 TSI	77
표 3-16. 해당 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 경쟁력 평가	78
표 3-17. 해당 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최근 3년 평균 MCA	80
표 3-18. 해당 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경쟁력 평가	81

<그림 목 차>

그림 2-1. BRICs 경제권 경제성장률 추이	9
그림 2-2. VIP 경제권 국별 1인당 국민소득 추이	15
그림 3-1. VIP 경제권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 추이(최근 10년) 43	
그림 3-2.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 추이(최근 10년)	45
그림 3-3.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 추이(최근 10년) 47	
그림 3-4. 필리핀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 추이(최근 10년)	50
그림 3-5. 해당 시장에서 전체 상품 무역에 대한 한국의 TSI 추이(최근 10년) ...	53
그림 3-6. VIP 경제권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 추이(최근 10년)	55
그림 3-7. 베트남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 추이(최근 10년)	57
그림 3-8. 인도네시아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최근 10년)	59
그림 3-9. 필리핀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 추이(최근 10년)	61
그림 3-10. VIP 경제권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추이(최근 10년)	64
그림 3-11. 베트남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추이(최근 10년)	67
그림 3-12. 인도네시아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추이(최근 10년)	69
그림 3-13. 필리핀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추이(최근 10년)	71

<부 록 목 차>

부록 1.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개정 3판(Rev.3)	92
부록 2. 해당 시장에 대한 한국의 전체 상품 무역액(2000년부터)	94
부록 3. 해당 시장에 대한 전세계 대비 한국의 전체 상품 무역 비중(2000년부터) ...	95
부록 4. 베트남의 전세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96
부록 5. 베트남의 전세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97
부록 6. 인도네시아의 전세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98
부록 7. 인도네시아의 전세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99
부록 8. 필리핀의 전세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100
부록 9. 필리핀의 전세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101
부록 10. 베트남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102
부록 11. 베트남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103
부록 12. 인도네시아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104
부록 13. 인도네시아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105
부록 14. 필리핀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106
부록 15. 필리핀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107
부록 16.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액(2000년부터)	108
부록 17.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2000년부터)	109
부록 18.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액(2000년부터)	110
부록 19.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2000년부터)	111
부록 20. 한국의 대필리핀 품목별 수출액(2000년부터)	112
부록 21. 한국의 대필리핀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2000년부터)	113
부록 22.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114
부록 23.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115

부록 2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116
부록 25.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117
부록 26. 한국의 대필리핀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118
부록 27. 한국의 대필리핀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119
부록 28.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액(2000년부터)	120
부록 29.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2000년부터)	121
부록 30.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122
부록 31.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123



ABSTRACT

A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in VIP(Vietnam·Indonesia·Philippines) Economic Bloc

by Kim, Tae He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s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y grows, the world's attention is focused on several Post BRICs economies following the BRICs economic bloc, which has led the global economic growth for some time. In this study, indicators such as IMS (International Market Share),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re estimated and analyzed to examin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in the VIP economic bloc. In particular, it is analyzed that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any item category among 10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ection of the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is estim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hare of exports to the VIP economy in Korea increased from 4.96% in 2000 to 8.35% in 2015. Second, the IMS analysis showed that the share of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has increased. Third, TSI analysis showed high competitiveness in 'Chemical and related products, n.e.s.',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ot classified elsewhere in the SITC'. Fourth, MCA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very competitive item classification. However, competitiveness was high in three categories :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and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export items to maintain stable competitiveness in the VIP economy.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utilize the VIP economic zone as a forward base in order to utilize the Korea-ASEAN FTA actively. Third, we must carefully examine and respond in order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the US, China, and Japan. Fourth, the VIP economy should be not only a production base but also a consumer market. Finally,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a long-term roadmap to help industrialization of the VIP economy and to gain market leadership.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성장이 진행되고 특히 최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들 간의 수출입 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기업들의 국제화, 다국적화로 글로벌 분업 생산이 촉진되면서 국가 간 교역규모의 확대와 무역의 자유화는 피해갈 수 없는 기조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세계 상품 교역량에서 이들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대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품 교역량이 급증한 신흥경제국들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흥경제국들을 한데 묶어 지칭한 것이 대표적으로 BRICs(브릭스) 경제권이다.¹⁾

이 경제권의 국가들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노동력(4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약 40%), 막강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2000년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2008년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BRICs(브릭스) 경제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세계 각국의 경제 리포트들은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BRICs(브릭스) 경제권을 잇는 다음의 경제권, Post BRICs(포스트 브릭스)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포스트 브릭스 경제권으로는 시베츠(CIVETS), 마빈스(MAVINS), 믹트(MIKT), 민트(MINT), 비스타(VISTA), VIP 경제권 등이 있다.²⁾

1) BRICs(브릭스) 경제권은 2000년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영문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2) 1. 시베츠(CIVETS) 경제권 : 콜롬비아(Colombia), 인도네시아(Indonesia), 베트남(Viet Nam), 이집트

이렇게 성장 엔진을 잃고 부유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과 일부 국가에서 낮을 드리우는 보호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환경의 주된 흐름은 무역 자유화이다. 이에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축으로 추진하고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TPP³⁾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주축으로 논의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RCEP⁴⁾이다.

이렇게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와 논의가 과열되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무역 수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에서 동남아시아의 3국이 급부상 하였는데 이른바 신흥경제권으로 떠오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으로 VIP 경제권 국가들이 그 주인공이다.

VIP 경제권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에서 ‘Post BRICS’

(Egypt), 터키(Turkey),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 마빈스(MAVINS) 경제권 : 멕시코(Mexico), 호주(Australia), 베트남(Viet Nam), 인도네시아(Indonesia), 나이지리아(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3. 믹트(MIKT) 경제권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y)
 4. 민트(MINT) 경제권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나이지리아(Nigeria), 터키(Turkey)
 5. 비스타(VISTA) 경제권 : 베트남(Viet Nam), 인도네시아(Indones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터키(Turkey), 아르헨티나(Argentina)
 6. VIP 경제권 :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
- 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것이 기원이다. TPP 참여 12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36.8%)은 유럽연합(EU·24.4%)과 한·중·일 등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을 웃돈다. TPP는 다자간 협정으로, 한꺼번에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TPP가 타결되면서 12개국 간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다. TPP 출범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 4)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까지 최종 타결을 목표로 2013년 본격협상이 시작됐지만 주요 국가들이 TPP로 기울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TPP폐기를 공언해 왔던 트럼프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국은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재편할 주도권을 쥌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 1310억 달러(1경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17조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규모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로 VIP를 언급하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축이 VIP 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이 브릭스 국가에 몰리면서 과열 경쟁으로 인건비 등 제조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VIP는 지속 가능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고 젊은 노동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브릭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목하였다. VIP의 부상은 핫머니(hot money)⁵⁾와 관련이 깊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단기 고수익을 좇는 핫머니가 브릭스에서 이탈해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VIP가 펀드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브렉시트⁶⁾ 이후 신흥 아시아 증시의 상승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두고 ‘VIP(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투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특히 베트남펀드에서 기대 이상의 빠른 성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국내 해외펀드 시장에선 베트남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전체의 약 17%에 달했다.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V.I.P에만 투자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⁷⁾ 또한 VIP가 주변국에는 ‘요인(要人, Very Important Person)’이자 향후 ‘매우 중요한 파트너(Very Important Partn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⁸⁾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리포트에서 VIP 경제권 시장의 중요성과 진출방안, 성장 동력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수출에 주로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 VIP 경제권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VIP 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5) 각 국가의 단기금리의 차이나 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내 통화의 불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 도피를 목적으로 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단기자금을 말한다.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 안정된 나라로 이동하는 자금도피와 국제간 금리차나 환시세 변동을 예측하고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이동 등 2가지가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6)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EU탈퇴’란 결론을 냈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경닷컴)

7)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기자,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투자..‘VIP펀드’가 뜬다”, 2016.10.20.

8) 이투데이, 배수경 기자, “[2012 VIP가 뜬다] ①-3 ‘젊은 VIP’, 포스트 브릭스로 주목”, 2011.12.6.

는 VIP 경제권 국가들의 각종 현황과 경제 상황, 세계 속에서 위치하는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국제연합(UN, Union Nations)에서 제공하는 세계 무역 통계(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제시장점유율(IMS),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등의 지표를 추정한 결과로 VIP 경제권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특히 SITC(표준 국제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의 대분류에 따라 10가지로 분류한 상품군에서 어떤 품목류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지 추정하여 분석한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VIP 경제권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여 국제통계 수치로 지표를 산출하고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으로는 국내외 각종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내 유관기관의 자료와 산업자원통상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경제부처 웹사이트 및 통계연감, 그리고 국제연합(UN)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의 외국 연구재단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역의 범위는 상품 무역에만 한정시킨다. VIP 경제권 국가들의 경우 아직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내외의 통계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의 경우 그 대상이 상품 무역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VIP 경제권으로 한국이 수출하는데 비교우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계 무역 통계(UN Comtrade Database)에서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대세계 수출입액, 쌍무적 수출입액 등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국제시장점유율(IMS, International Market Share),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 등의 지표를 산출하고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추정한다. 또한 SITC의 대분류에 따른 10가지 상품군에서 어떤 품목류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지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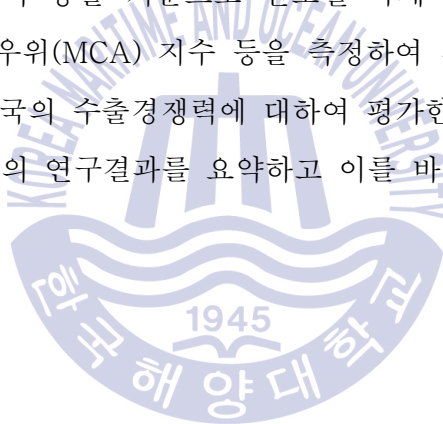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VIP 경제권에 대하여 소개하고, VIP 경제권 국가들의 현황과 경제 상황, 수출입 추이 그리고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수출경쟁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VIP 경제권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수출경쟁력(국제경쟁력) 평가에 활용되는 측정지표를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대세계 수출입액, 쌍무적 수출입액 등을 기준으로 연도별 국제시장점유율(IMS),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등을 측정하여 전체 상품수출과 품목분류별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한다.



제2장 VIP 경제권 현황

제1절 개 요

‘VIP 경제권’이란 지난 2011년 11월 일본 경제지 닛케이 비즈니스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로,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 등 3개국의 앞 글자를 딴 신흥경제성장 주도국을 일컫는다. 해당 언론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축이 선진국에서 브릭스(BRICs)로, 다시 VIP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VIP 경제권은 동남아시아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 10개국 전체 인구의 약 70%, 경제 규모의 약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 VIP 경제권 국가 정보

구 분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
면 적	331천km ² (한반도 1.5배)	1,904천km ² (한반도 8.5배)	300천km ² (한반도 1.3배)
수 도	하노이(692만명)	자카르타(1,200만명)	마닐라(1,140만명)
인 구	9,344만명(세계 15위)	2억5,756만명(세계 5위)	1억69만명(세계 13위)
민족	베트남인(86%)	자바족(41%), 순다족(15%)	타갈로그족(28%), 세부아노족(13%)
종 교	불교(44%), 가톨릭(37%)	이슬람교(86%), 개신교(6%)	가톨릭(83%), 기독교(12%)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언 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영어
통화단위	동(Dong)	루피아(Rupiah)	페소(Peso)
환 율	22,473동/달러	13,389루피아/달러	45.5페소/달러
GDP	1,862억 달러	8,880억 달러	2,850억 달러
1인당GDP	2,032달러	3,362달러	2,862달러
對한국 교역규모	수출 224억 달러 수입 79억 달러	수출 114억 달러 수입 123억 달러	수출 115억 달러 수입 100억 달러

주 : 2014년 기준, 환율은 2015년 8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http://www.kita.net/>

1. 브릭스(BRICs) 경제권의 추락

브릭스(BRICs) 경제권이란, 199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신흥경제국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을 칭하는 용어로, 2003년 골드만삭스 투자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브릭스 경제권의 국가들은 모두 넓은 영토와 풍족한 지하자원,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1, 2위의 인구대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이 브릭스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브릭스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었지만,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브릭스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브라질은 GDP의 상당부분을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매장량은 세계 7위이며, 철광석 또한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브라질은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 2008년 전 세계가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브라질은 이를 비켜가는 듯 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자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원유부국인 브라질은 수혜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자원수입국인 중국이 투자 주도의 성장을 지양하면서, 해외로부터 원자재 수요가 이전과 달리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중국의 원자재 구매가 축소되면서 원자재 수출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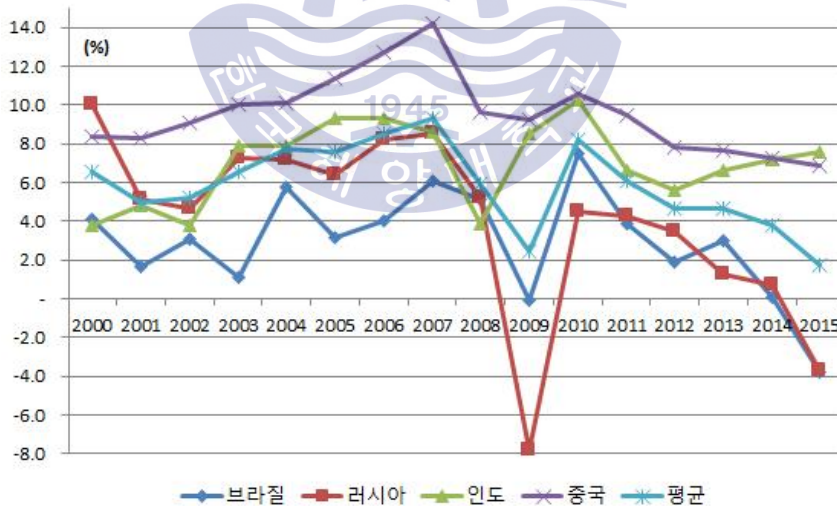
또 다른 자원 부국인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하락하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하락하게 되었고, 러시아 경제는 순식간에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원자재 구매 축소가 러시아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지나친 자원 의존도로 인해 네덜란드 병⁹⁾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9)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란,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결국 물가와 통화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GDP 성장률이 10%가 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신흥공업국답게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많은 생산시설을 건설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호황도 같이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도 2015년 경제 성장률이 6.9%로 하락하며, 장기 성장률 또한 6%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 1위국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이고, 생산가능인구 역시 2015년 약 10억 명에서 2030년 9억 6천만 명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추락하는 브릭스 경제에서 세 나라와 달리 인도는 견재함 보이고 있다. 2010년 경제성장률 10.3% 도달 후 2012년 5.6%로 떨어지긴 했지만, 2013년 6.6%, 2014년 7.2%, 2015년 7.6%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인구가 많으며, ‘모디노믹스’¹⁰⁾의 여파로 인도는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2-1. BRICs 경제권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World Bank

가치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기침체를 겪는 현상
 10) 모디노믹스(Modinomics)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 성장률을 회생시키겠다는 전략

2. VIP 경제권의 부상

브릭스(BRICS) 평균 경제 성장률이 2011년 5.5%에서 2015년 1.66%로 급락한 반면,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 3개 신흥 경제성장 주도국으로 이루어진 VIP 경제권은 연평균 성장률 5.5% 이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어, 포스트 브릭스 국가로 대두되고 있다. VIP 경제권의 20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5.4%로 전 세계 평균인 2.7%의 두 배를 기록하였다. 2012년도 성장률은 5.9%로 브릭스 경제권(4.2%)을 추월하여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서의 알려지게 되었다. IMF는 2018년 VIP 경제권의 GDP 규모가 약 2조 1,730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 세계 GDP의 2.2%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브릭스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VIP 경제권은 GDP의 50%를 차지하는 탄탄한 내수시장,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2-2. 경제성장률 변화 비교 (2011~2015년)

(단위:%)

연도	VIP				BRICs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평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평균
2011	6.2	6.2	3.7	5.4	3.9	4.3	6.6	9.5	3.2	5.5
2012	5.2	6.0	6.7	5.9	1.9	3.5	5.6	7.8	2.2	4.2
2013	5.4	5.6	7.1	6.0	3.0	1.3	6.6	7.7	2.2	4.2
2014	6.0	5.0	6.1	5.7	0.1	0.7	7.2	7.3	1.5	3.4
2015	6.7	4.8	5.8	5.8	-3.8	-3.7	7.6	6.9	1.3	1.7

자료 : World Bank

VIP 경제권 국가들은 각각 세계인구 14위(베트남), 4위(인도네시아), 12위(필리핀)의 인구 대국들로, 특히 중위연령 평균이 27.6세로 젊은 생산가능 연령층이 많아 노동력이 풍부하다. 또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완만한 인구 증가율과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

표 2-3. 인구 통계 비교

구분	VIP 평균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총인구(억)	*4.5	2.1	1.4	12.9	13.7	0.6
중위연령(세)	27.6	31.3	38.7	26.6	37.0	25.2
인구증가율(%)	1.33	0.9	0.2	1.2	0.5	1.6
출생(명/여성1명)	2.5	1.82	1.66	2.48	1.55	2.4

주 : *3국 합계, 출생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자료 : UN, World Bank (2014년 기준)

VIP 국가들의 인프라 현황은 베트남 76위, 인도네시아 62위, 필리핀 90위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SOC 투자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와 신성장동력산업에서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 규모는 2020년까지 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2-4. VIP 국가 인프라 순위

구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위	76위	62위	90위
점수	3.84	4.19	3.44

자료 : WEF, 201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pp.10~11.

한국 경제 측면에서도 VIP 경제권 부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동남아에서 열풍인 한류는, 한국 기업이 VIP 경제권 시장에 다각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한류 문화 콘텐츠의 꾸준한 인기로 한류를 접한 현지인들의 한국산 제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를 통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친근감이 높아지고 있다. CJ오쇼핑의 성공적인 필리핀 현지 진출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오프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망의 진출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VIP 경제권의 부상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제2절 VIP 경제권의 주목 요인

1. 풍부한 노동력

UN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인도네시아 인구 규모(2억 5,756만 명)는 세계 4위, 필리핀(1억 69만 명) 세계 12위, 베트남(9,344만 명)은 세계 14위의 인구 대국으로, VIP 경제권은 전 세계인구의 약 6%인 4억 5,171만 명의 인구 규모를 가진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5년 3억 2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 가능인구 비중은 2020년 67.3%, 2025년 67.1%, 2030년 67.2%로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표 2-5. VIP 경제권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단위 : 만명)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전세계	734,947.2	482,548.4	775,815.7	505,669.6	814,166.1	528,584.2	850,076.6	549,613.3
베트남	9,344.8	6,557.2	9,815.7	6,777.5	10,209.3	6,945.9	10,522.0	7,099.7
인도네시아	25,756.4	17,291.3	27,185.7	18,446.3	28,450.5	19,283.9	29,548.2	20,114.5
필리핀	10,069.9	6,391.6	10,843.6	6,951.4	11,615.1	7,493.6	12,357.5	8,031.9
VIP경제권	45,171.1	30,240.1	47,845.0	32,175.2	50,274.9	33,723.4	52,427.7	35,246.1

주 : 생산가능인구 (15~64세)

자료 : UN

2. 풍족한 자원 매장량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은 세계 1위이며, 고무, 코코아, 주석의 생산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석, 니켈, 보트사이트, 금, 구리 등 다양한 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필리핀은 니켈, 셀레늄 등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 등이 풍족하게 매장되어 있고, 베트남 또한 보크사이트, 티타늄, 석탄, 석유, 철광석 등 여러 종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 매장량은 전 세계 자원개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표 2-6. VIP 국가 주요 자원 매장량

(단위 : 만 톤)

	구분	매장량(A)	세계 매장량(B)	A/B(%)	세계순위
베트남	보크 사이트 및 알루미나	210,000	28,000,000	7.1	4
	티타늄	160	70,000	0.229	12
	석탄	15,000	89,153,100	0.16	-
	천연가스(조 ^m)	0.6	185.7	0.3	-
	오일(십억 배럴)	4.4	1,687.9	0.3	-
인도네시아	주석	80	470	17.0	2
	동	2,800	69,000	4.1	8
	금	0.3	5.4	5.6	5
	니켈	390	7,400	5.2	6
	보크사이트	100,000	2,800,000	3.6	6
	석탄	2,801,700	89,153,100	3.1	-
	천연가스(조 ^m)	2.9	185.7	1.6	-
	오일(십억 배럴)	3.7	1,687.9	0.2	-
필리핀	니켈	110	7,400	1.48	12
	셀레늄	0.05	9.8	0.5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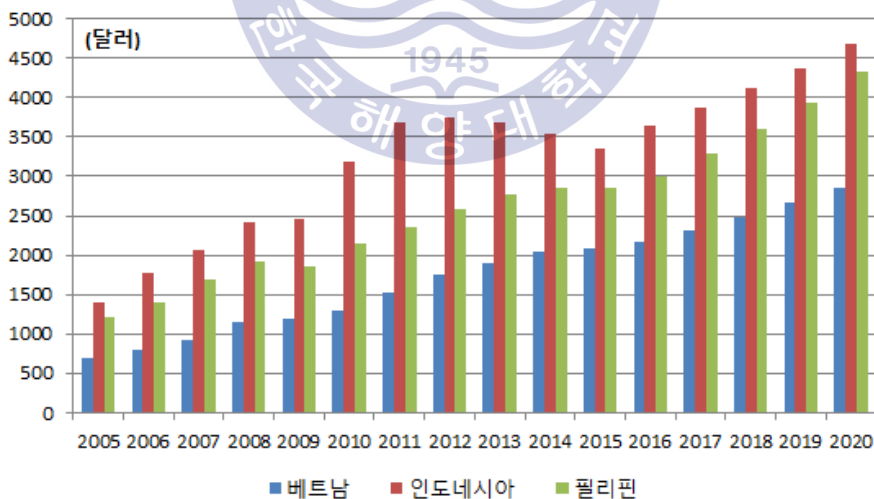
주 : 2013년 말 기준

자료 : 정민, 천용찬, 이해정, “아세안(ASEAN) 시장이 떠 오른다! - 한·ASEAN 교류 현황과 기회요인”, 「현안과 과제」, 15-05, 현대경제연구원, 2015.2.4, p.10.

3.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

201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 2,088달러, 인도네시아 3,362달러, 필리핀 2,862달러로 동남아의 다른 국가인 태국(5,816달러), 말레이시아(9,766달러) 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은 연평균 11.7%, 인도네시아는 9.7%, 필리핀은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IMF에 따르면 이후(2016~2021년)에도 베트남은 6.7%, 인도네시아는 7.1%, 필리핀은 8.7%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소득 증가는 중산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도시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의 고급화가 진행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전체 소비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 백화점의 확대, 고급 브랜드 선호, 고급 내구소비재 수요 증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소비의 고급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VIP 경제권 국별 1인당 국민소득 추이



주 : 명목소득 기준

자료 : IMF

4. 도시화 진전과 인프라 수요 증대

VIP 경제권 도시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베트남 2,317만 명, 인도네시아 1억 2,015만 명, 필리핀 4,517만 명으로 각각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30.6%, 49.7%, 45.4%이다. VIP 경제권 전체적으로는 도시인구 1억 8,950만명, 도시화율 44.7%에 불과하였으나, 도시화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도시인구 3억 7,180만 명으로 도시화율 6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들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8.9%,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82.7%,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5.9% 증가하였다.¹¹⁾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3국의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인프라 및 환경개선 분야 수요가 증대 중이며, 각국 정부 역시 인프라 산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그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5. 외자 유치 증대

TPP가 체결됨에 따라 그 회원국이 된 베트남의 경우, 투자환경 개선과 관세 인하 혜택을 활용하려는 외국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에서도 수출 증가 및 외자유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해외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급증하여 2014년에는 285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이는 베트남(89억 달러), 필리핀(39억 달러), 태국(129억 달러)에 비해 큰 금액이다.¹²⁾ 필리핀은 정부 차원에서 우선시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우선분야(IPP)를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11) 안중기, 백흥기, “아세안 신흥국 수출시장에 주목하자: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과 시사점”, 「VIP 리포트」, 13-26 [통권 536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7.30, p.6.

12) 신경련, 안유석, “2016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015.11, p.7.

제3절 VIP 경제권 국가별 현황

1. 베트남(Vietnam)

표 2-7. 베트남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US\$십억)	122.7	149.8	171.2	186.2
GDP성장률 (%)	5.9	5.6	5.4	6.0
1인당 GDP(US\$)	1,374	1,498	1,894	2,032
소비증가율 (%)	4.1	4.9	5.2	-
투자증가율 (%)	-7.8	1.9	5.3	-
수출 (US\$억)	951.98	1,078.67	1,324.77	1,495.65
수입 (US\$억)	977.27	1,091.06	1,312.60	1,487.71
무역수지 (US\$억)	-25.29	-12.39	12.17	7.94
경상수지 (US\$십억)	0.2	9.3	9.5	9.4
실업률 (%)	4.51	4.47	3.59	3.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1.1 특징

1.1.1 풍부한 양질의 저임 노동력

베트남은 2016년 기준 인구 약 9,200만 명, 세계 14위로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7,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 2-8. 베트남 생산가능인구 (15세 ~64세)

(단위 : 만 명)

년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생산가능인구	6,165	6,557	6,777	6,945	7,099

자료 : UN

또한 베트남 중위 연령이 2015년 기준 30.4세로 일본 46.5세, 한국 40.6세, 중국 37세와 비해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령분포는 풍부한 노동력과 젊은 소비층을 보유한 것으로 베트남 경제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주요 국가별 중위 연령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	미국
30.4세	40.6세	46.5세	37세	38세

자료 : UN (2015년 기준)

임금 수준은 2013년 공장 근로자 기준으로 하노이 145달러, 호치민 148달러로 중국 북경 466달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39달러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근로자들은 성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기본적인 교육 수준도 높은 편에 속한다. 한편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공급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1.1.2 중산층의 증가

2015년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2,088달러로 다른 신흥국가인 태국 5,816달러, 인도네시아 3,346달러, 필리핀 2,899달러, 중국 7,924달러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인당 GDP가 약 2,855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0. 베트남 국내총생산

(단위 : 십억 달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57.648	66.393	77.52	98.269	101.634	112.771	134.598	155.565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170.565	185.897	191.454	200.493	215.919	234.189	254.324	275.762

주 : 2016년부터 추정치

자료 : IMF

표 2-11. 베트남 1인당 국내총생산

(단위 : 달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699.682	796.928	920.463	1,154.49	1,181.45	1,297.23	1,532.31	1,752.62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1,901.70	2,048.95	2,088.34	2,164.28	2,306.66	2,475.92	2,660.95	2,855.36

주 : 2015년부터 추정치

자료 : IMF

1.1.3 도시화의 진전

2014년에는 도시인구가 3,049만 명으로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이 33%에 그치고 있으나, 도시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2050년에는 5,574만 명, 도시화율 53.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의 진전은 전기·통신·물류 등 각종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2. 베트남 도시화율

(단위 : %)

년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도시화율	27.3	30.4	33.6	36.8	39.9	43.0	45.7	48.4	51.1	53.8

자료 : UN

1.2 무역현황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2000년에 최초로 2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5년 1~9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위 수출국이자, 11위 수입국에 해당하는 주요 무역대상국이다.

표 2-13. 한국과 베트남 수출입 동향

(단위 : USD 백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9월)
수출 (한→베)	9,652	13,465	15,946	21,088	22,352	20,982
수입 (베→한)	3,331	5,084	5,719	7,175	7,990	6,906
교역액	12,983	18,549	21,665	28,263	30,342	27,888
무역수지	6,321	8,381	10,227	13,913	14,362	14,0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년 1~9월 한국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5년 1~9월 수출액은 6.6%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의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29.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베트남은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한국의 4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표 2-14. 한국의 국가별·연도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 :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134,323	0.1	145,869	8.6	145,233	-0.4	102,064	-3.8
2	미국	58,525	4.1	62,052	6.0	70,285	13.3	54,424	2.9
3	홍콩	32,606	5.3	27,756	-14.9	27,256	-1.8	22,091	10.8
4	베트남	15,946	18.4	21,088	32.2	22,352	6.0	20,982	29.8
5	일본	38,796	-2.2	34,662	-10.7	32,184	-7.2	19,374	-20.6
6	싱가폴	22,888	9.8	22,289	-2.6	23,750	6.6	11,399	-42.2
7	대만	14,815	-18.6	15,699	6.0	15,077	-4.0	9,047	-20.7
8	인도	11,922	-5.8	11,376	-4.6	12,782	12.4	8,898	-6.7
9	멕시코	9,042	-7.1	9,727	7.6	10,846	11.5	8,841	13.7
10	호주	9,250	13.3	9,563	3.4	10,283	7.5	8,629	13.5
총계		547,870	-1.3	559,632	2.1	572,665	2.3	396,868	-6.6

자료 : 유선아 외, “2016 베트남 진출전략”, KOTRA 하노이 무역관, 2015.11

2. 인도네시아(Indonesia)

표 2-15. 인도네시아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1	2012	2013	2014
GDP (US\$십억)	894	920	912	888
GDP성장률 (%)	6.1	6.23	5.6	5.0
1인당 GDP(US\$)	3,708	3,764	3,676	3,533
소비증가율 (%)	5.1	5.5	5.4	5.1
투자증가율 (%)	8.9	9.1	5.3	4.1
수출 (US\$억)	203.5	190.04	183	176
수입 (US\$억)	177,44	191,67	187	178
무역수지 (US\$억)	26,06	-1,63	-4.1	-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2.1 특징

2.1.1 인구 대국의 풍부한 노동력

글로벌 기업들이 증가하는 중국의 생산비용 및 제도적 리스크를 피해 아세안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긴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주요 투자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억 5,756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5년 기준 1억 7,2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7.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장 근로자 임금 수준은 239달러로 중국 북경의 466달러, 태국 방콕 345달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4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가장 큰 매력요인이다.

표 2-16. 인도네시아 생산가능인구 (15세 ~64세)

(단위 : 만 명)

년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생산가능인구	15,990	17,291	18,446	19,283	20,114

자료 : UN

또한 경쟁국인 태국, 베트남, 중국보다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정치경제적 안정성이 높아 꾸준한 해외자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거점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급증하여 2014년 기준 285억 달러에 달한다.

표 2-17. 연도별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1,231	108	2,965	162	3,592	195	4,416	246	6,863	286	8,885	285

자료 : 신경련 외, 전게서

2.1.2 중산층의 증가와 빈곤층의 감소

인도네시아 중산층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2015년 3,360달러이며, 2020년에 4,6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기준으로 연소득 3,000~15,000달러의 중산층은 약 2,400만 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약 1억 4,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소득 1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인구 또한 2050년에 약 2,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¹³⁾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비중은 2002년 18.2%에

서 2014년 11.3%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2-18.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

(단위 : 십억 달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310.815	396.293	470.144	558.582	577.537	755.256	892.59	919.002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914.552	890.597	858.953	940.953	1,014.87	1,096.90	1,177.57	1,273.81

주 : 2016년부터 추정치

자료 : IMF

표 2-19. 인도네시아 1인당 국내총생산

(단위 : 달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1,403.88	1,764.79	2,064.23	2,418.04	2,464.96	3,178.13	3,688.53	3,744.53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3,675.58	3,531.80	3,362.36	3,635.81	3,870.80	4,129.70	4,376.18	4,672.74

주 : 2016년부터 추정치

자료 : IMF

2.1.3 풍부한 자원 보유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자원, 관광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세계적 수준의 생산량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주석(매장량 기준 세계 2위), 니켈(세계 6위), 금(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6위), 구리(세계 8위) 등 다양한 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팜오일(세계 1위), 고무

13) 안중기, “아세안(ASEAN)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VIP 리포트」, 15-15 [통권 612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07.30, p.7.

(세계 2위), 코코아(세계 2위), 커피(세계 4위) 등 농업자원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자원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20. 인도네시아 주요 천연자원 생산량, 매장량

분야	고무	석탄	팜오일	코코아	주석	지열
순위	2위(생산)	2위(수출)	1위(생산)	2위(생산)	2위(생산)	1위(매장)
수량	2.6백만톤/년	2.6억톤/년	1.9천만톤/년	77만톤/년	6.5만톤/년	세계매장량 40%

자료 : 신경련 외, 전게서

2.1.4 다양한 인프라 투자 기회

인도네시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4년 도시인구는 1억 3,399만 명이고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53%에 불과하지만, 2050년까지 도시인구 2억 2,777만 명, 도시화율 70.9%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1. 인도네시아 도시화율

(단위 : %)

년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도시화율	45.9	49.9	53.7	57.2	60.3	63.0	65.2	67.2	69.1	70.9

자료 : UN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역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기부양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대신 공약으로 해양고속도로(Maritime Axis) 신설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을 내세운 바 있으며, 국가 중기개발계획 (RPJMN

2015-2019)¹⁴⁾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2.2 무역현황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규모는 2004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14년 236억 달러를 달성, 인도네시아 수입시장 점유율 6.21%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국이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2014년 113억 달러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다.

표 2-22.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10월
수출	금액	135.6	139.6	115.7	113.6	67.8
	증가율	52.5	2.9	-17.1	13.2	-16.8
수입	금액	172.2	156.8	131.9	122.6	74.5
	증가율	23.1	-8.9	-15.9	-7	-28.9
총 교역액		307.8	296.3	247.6	236.2	142.3
증가율		34	-4	-16	-4	-28.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17.19%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인도네시아 수입 중 한국은 6.65%의 점유율을 보여 인도네시아 5대 수입국에 포함되었다.

14) 제3차 중기 개발계획(RPJMN 2015-2019)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해양고속도로(Sea Toll Road) 건설 계획에 맞추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신설·확장·보수 하겠다는 계획

표 2-23. 인도네시아 5대 수입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인도네시아의 수입(US\$ 백만)			국별 비중(%)		
		2013	2014	2015.1~8	2013	2014	2015.1~8
-	전체	186,629	178,179	96,430	100	100	100
1	중국	29,849	30,624	19,163	15.99	17.19	19.87
2	싱가포르	25,582	25,186	12,393	13.71	14.14	12.85
3	일본	19,285	17,008	9,174	10.33	9.55	9.51
4	말레이시아	13,323	10,855	6,046	7.15	6.09	6.27
5	한국	11,593	11,847	5,831	6.21	6.65	6.05

자료 : 신경련 외, 전계서



3. 필리핀(Philippines)

표 2-24. 필리핀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1	2012	2013	2014
GDP (US\$십억)	224	250	272	285
GDP성장률 (%)	3.7	4.2	7.2	6.1
1인당 GDP(US\$)	2,223	2,329	2,790	2,862
수출 (US\$억)	47,231	51,391	53,928	61,926
수입 (US\$억)	62,655	67,463	65,040	67,545
무역수지 (US\$억)	-15,424	-16,072	-11,112	-5,619
실업률 (%)	7.0	7.0	7.1	6.8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3.1 특징

3.1.1 중산층의 증가

2015년 기준 필리핀의 일인당 GDP는 2,862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하였다. 2015~2019년에도 연평균 10.1%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2020년 기준 약 4,326달러의 일인당 소득에 이를 전망이다.

표 2-25. 필리핀 국내총생산

(단위 : 십억 달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103.074	122.211	149.36	173.603	168.485	199.591	224.143	250.092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271.836	284.829	292.451	311.687	348.593	389.484	435.905	487.989

주 : 2016년부터 추정치

자료 : IMF

표 2-26. 필리핀 1인당 국내총생산

(단위 : 달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1,208.93	1,405.21	1,683.69	1,919.11	1,851.07	2,155.41	2,363.88	2,591.36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2,768.61	2,844.06	2,862.90	2,991.38	3,279.98	3,592.88	3,942.25	4,326.76

주 : 2016년부터 추정치

자료 : IMF

또한 소득 계층별로 저소득층 인구는 감소하고,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소득 3,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인구는 2011년 8,600만 명에서 2050년 3,1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연평균 가구소득 3,000~15,000달러의 중산층 인구는 2010년 1,000만 명에서 2050년 9,200만 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연소득 1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인구도 2050년에는 3,000만 명에 이르러 소비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⁵⁾

표 2-27. 필리핀 소득 계층별 인구 규모

(단위 : 백만 명)

구분	2011년	2050년
저소득층	86	31
중산층	10	92
고소득층	-	30

자료 : 안중기, 전계서

15) 안중기 외, 전계서, p.11

3.1.2 BPO 산업과 자원개발 산업 유망

필리핀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¹⁶⁾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BPO 산업의 매출액은 2004년 13.2억 달러에서 2011년 120.7억 달러로 연평균 37.1%씩 성장하고 있으며, 매출액 중에서 수출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 친절하고 온순한 국민성, 저렴하고 안정된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인도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BPO 산업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BPO산업은 필리핀에서 재생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관광 등과 함께 향후 경제성장을 주도할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¹⁷⁾

또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대 광물자원 부국이다. 특히, 니켈(세계 12위), 셀레늄(세계 7위) 등 금속광물과 비금속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자원 개발을 활용한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3.2 무역현황

필리핀의 주요 무역국은 한·중·일 3국, 미국, ASEAN 회원국이다. 2015년 7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반면 수입은 1.7%감소하였다. 10대 수입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 증가한 가운데 對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하였는데 이는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억 달러 급감한데 기인한다.

16)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내 핵심역량을 제외한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전략적 차원의 아웃소싱 방식을 말한다. BPO는 기획, 운영, 모니터링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단순업무를 위탁하는 수준의 기존 아웃소싱과는 구분된다.

17) 안중기, 전계서, p.10

표 2-28. 필리핀 수출입 동향 (최근 3개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3(1~7월)		2014(1~7월)		2015(1~7월)		2015/2014 수입액 증감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계	30,422	35,102	35,262	36,955	34,214	37,570	1.67
1	중국	3,656	4,569	4,753	5,502	3,939	5,982	8.74
2	미국	4,196	3,931	4,981	3,292	5,217	4,151	26.11
3	일본	6,142	3,020	7,888	3,006	7,204	3,303	9.85
4	대만	929	2,765	1,146	2,392	1,129	2,798	16.96
5	싱가폴	2,233	2,410	2,566	2,483	2,065	2,653	6.84
6	한국	2,153	2,919	1,525	3,129	1,498	2,315	-25.99
7	태국	1,110	1,842	1,458	1,796	1,318	2,182	21.49
8	말레이시아	888	1,296	672	1,848	761	1,813	-1.84
9	인도네시아	518	1,513	454	1,729	373	1,735	0.38
10	독일	1,062	1,049	1,526	1,400	1,520	1,717	22.60

자료 : 이연주, 현성룡, 안유석, “2016 필리핀 진출전략”, KOTRA 마닐라 무역관, 2015.10, p.4



제3장 VIP 경제권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 분석

제1절 선행연구

본 연구는 VIP 국가들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VIP 경제권으로 한국이 수출하는데 비교우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역성과지수 산출을 통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다양한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지용(2008)¹⁸⁾은 한국과 중국의 섬유제품 11개를 대상으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시장별비교우위지수(MC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제품에서 한국산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간의 경쟁력을 보면 면방직, 화학섬유 방직, 면직물 직조 등 일부 품목만 경쟁력이 신장된 반면 중국산 대부분의 제품에서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중환(2012)¹⁹⁾은 무역특화지수(TSI), 산업내 무역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수출 점유율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용밸브의 수출경쟁력과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2011년도에 -0.106으로 다소 완화된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도 모두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수출에 주력해야하며,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도 2011년도 기준으로 주변국인 중국 3.541, 일본 1.884에 비해 0.511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밸브산업이 설비투자과 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김희철(2013)²⁰⁾은 시장점유율분석,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결

18) 김지용, “한중 섬유제품의 대 미국시장 경쟁력 비교 분석”, 「상품학연구」 Vol.26, No.3, 한국상품학회, 2008, p.69.

19) 구중환, “한국 산업용밸브의 수출경쟁력과 수출 결정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99.

20) 김희철,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 한칠레 FTA 체결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15호, 2013.10, p.265.

합도지수 등 보편화된 경쟁력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칠레 수입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의 변화가 크지 않아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에서 수출결합도가 1을 상회하고 있어 양국간 수출긴밀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희철(2015)²¹⁾은 한국과 중국 IT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다음,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장점유율 지수,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와 수출편향지수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IT산업의 대중국 시장점유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의 경우 19.69%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그리고 수출편향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한국 IT산업은 현재 중국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개별 국가 간의 수출경쟁력 측정 또는 개별 상품의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주로 측정하였다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한국 제품이 개별 국가에서 가지는 수출경쟁력 뿐만 아니라, 한 경제권으로서 VIP 경제권에서의 수출 경쟁력도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국제시장점유율(IMS),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의 수출경쟁력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상품무역이 VIP 경제권에서 가지는 수출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1) 김희철, “한국 IT 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8권 제4호 (통권 제44호), 2015, p.1.

제2절 수출경쟁력 분석방법

VIP 경제권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품 전체와 품목분류별로 수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한다.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연도별 국제통계 수치를 추출하여 지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지표에 대하여 그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VIP 경제권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지, 또한 10가지 품목분류별로 산출한 수출경쟁력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어떤 품목분류에서 비교우위가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3년 평균 지표를 계산하여 현 상태를 진단한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력이 확대되고 있는 VIP 경제권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교역을 위한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의 과정에서 어떤 산업에 대하여 개방을 하고 어떤 산업에 대하여 유보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VIP 경제권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어떤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정책적 배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떤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전면적 개방을 유도할 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국제연합(UN, Union Nations)에서 제공하는 세계 무역 통계(UN Comtrade Database)에서 통계수치를 추출한다.²²⁾ 이를 통해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 시장비교우위(Market Comparative Advantage : MCA) 지수 등의 지표를 추정하고 그 결과로 VIP 경제권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또한 SITC의 대분류에 따라 10가지로 분류한 품목분류별로 각 지표를 연산하여 어떤 품목분류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지 추정하여 분석한다.²³⁾

22) 홈페이지 주소 <https://comtrade.un.org/>

23)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는 UN의 통계분과위원회가 국제경제의 분석 및 국제무역자료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역상품의 분류방법으로서의 표준국제무역분류(SITC)를 추천하였고, 1950년 7월 21일에 UN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선포,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SITC 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ITC는 식료품, 원료, 가공품, 화공약품, 기계 및 운반기구들과 같이 물품의 종류별로 분

1. 국제시장점유율(IMS)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은 어떤 경제권(국가)의 특정 상품(품목분류) 수출입액이 그 특정 상품(품목분류)의 전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특정 상품(품목분류)에서 세계시장 전체 수출액에서 그 경제권(국가)의 수출액 비중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경제권(국가)의 특정 상품(품목분류)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높다는 뜻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MS_i^k = \frac{X_i^k}{X_w^k} \times 100 (\%) \quad (3-1)$$

IMS_i^k : i 국가의 k 상품(산업) 수출에서의 국제시장 점유율

X_i^k : i 국가의 k 상품(산업) 대세계 총수출액

X_w^k : k 상품(산업) 전세계 총수출액

그러나 세계시장 전체에서 수출액으로 시장점유율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값을 구할 수 있겠으나, 특정국 시장(특정 경제권)에서 시장점유율을 구하거나 특정국(특정 경제권)이 수입하는 전체 수입액에 대하여 다른 어떤 나라로 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식을 나타낼 수 있다.²⁴⁾

류되어 있다. (출처 : 쉬핑뉴스넷 <http://www.shippingnewsnet.com/>)

24) j국(경제권)의 수입액(j국이 Reporter)에 대하여 i국의 j국(경제권)으로의 수출액(i국이 Reporter)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통계 집계시 보고주체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연도에 k상품에 대하여 i국이 j국에 수출한 금액과 j국이 i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이론상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제적인 품목분류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적용과정에서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식의 분모값과 분자값에 해당하는 통계수치를 보고하는 주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IMS_{ij}^k = \frac{M_{ij}^k}{M_j^k} \times 100 (\%) \quad (3-2)$$

IMS_{ij}^k : j 경제권에서 i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k 상품(산업) 점유율

M_{ij}^k : i 국가로부터 j 경제권의 k 상품(산업)에 대한 수입액

M_j^k : j 경제권의 k 상품(산업)에 대한 총수입액

그런데 국제시장점유율(IMS)을 활용하여 특정국(특정 경제권)에서의 특정 상품(품목분류)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 수치인 교역국가의 경제규모가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수치로 산출되는 수출경쟁력 평가에 IMS 지표를 직접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수출경쟁력을 평가할 때는 TSI와 MCA 지수만을 활용하며, 보조적 지표로서 IMS는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의의를 둔다.



2.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는 특정국의 어떤 상품(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특정 상품(품목분류)의 교역에 대하여 수출에 더 가까이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더 가까이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순수출비율지수 또는 국제경쟁력지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지표는 특정 상품(품목분류)의 순수출액(무역수지)이 그 상품(품목분류)의 무역총액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TSI는 그 수식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의 존재나 수요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수입이 영향을 받게 되면 TSI 값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높거나 낮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²⁵⁾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SI_i^k = \frac{X_i^k - M_i^k}{X_i^k + M_i^k} \quad (3-3)$$

TSI_i^k : i 국가의 k 상품(산업) 무역에서의 무역특화지수

X_i^k : i 국가의 k 상품(산업)에 대한 총수출액

M_i^k : i 국가의 k 상품(산업)에 대한 총수입액

마찬가지로 전세계 무역특화지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값을 구할 수 있겠으나, 특정국 시장(특정 경제권)에서의 무역특화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식을 나타낼 수 있다.

25) 유일선,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9.6, p.601.

$$TSI_{ij}^k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quad (3-4)$$

TSI_{ij}^k : i 국가의 j 경제권에서 k 상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

X_{ij}^k : i 국가의 j 경제권으로의 k 상품(산업) 수출액

M_{ij}^k : i 국가의 j 경제권으로부터의 k 상품(산업) 수입액

무역특화지수(TSI)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특정 상품(품목분류)의 무역에 있어서 그 값이 1 이면 ‘완전수출특화’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1 이면 ‘완전수입특화’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중간 값인 0 에 가까우면 비교우위에 있어서 수출특화도 수입특화도 아닌 ‘중립’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TSI 값이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면 특정 상품(품목분류)의 교역에 있어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1부터 0사이의 값을 가지면 수입특화에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수출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SI 값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을 기존의 연구²⁶⁾에서 약간 변형²⁷⁾하여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가 있는 상태($0.5 \leq TSI \leq 1$)’, ‘다소 비교우위가 있는 상태($0.1 \leq TSI < 0.5$)’, ‘비교우위 중립상태($-0.1 < TSI < 0.1$)’, ‘다소 비교열위가 있는 상태($-0.5 < TSI \leq -0.1$)’, ‘수입특화가 강한 비교열위가 있는 상태($-1 \leq TSI \leq -0.5$)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6) 남시경, “한·중 철강 교역구조 및 철강제품별 경쟁력 분석”, 「POSRI 경영연구」, 제7권 제1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 p.102.

27) 기존의 연구에서 TSI 값이 ‘0’일 경우만 비교우위 중립상태로 간주하는 것을 ($-0.1 < TSI < 0.1$)으로 약간 확장한다.

3.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지수는 Bela A. Balassa(1965)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들 간에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어떤 국가의 특정 상품(품목분류) 수출구성비가 세계 전체의 그 상품(품목분류) 수출구성비에 비해 얼마나 큰가로 비교우위를 측정하고 이를 국제경쟁력의 척도로 삼는 방법이다. RCA 지수는 특정 산업이나 상품(품목분류)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지수로서 특정 산업 또는 상품(품목분류)의 비교우위 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²⁸⁾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CA_i^k = \frac{(X_i^k / X_w^k)}{(X_i / X_w)} \quad (3-5)$$

RCA_i^k : k 상품(산업) 무역에서 i 국가의 현시비교우위지수

X_w : 전체 상품(산업)의 전세계 총수출

X_w^k : 상품(산업) k 의 전세계 총수출

X_i : 전체 상품(산업)의 i 국의 대세계 수출

X_i^k : 상품(산업) k 의 i 국의 대세계 수출

그러나 RCA 지수는 식(3-5)에서와 같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경제규모에 격차가 있는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품목별 시장점유율과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 교역뿐만 아니라 제 3국에 대한 수출이 많을 경우 비교우위가 높게 계측되는 문제점이 있다. 전 세계 시장보다 상대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비교우위

28) 김영환,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2, p.77.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 MCA)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²⁹⁾ MCA 지수는 RCA 지수와 마찬가지로 항상 0 보다 큰 값을 가지며, 1 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으면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그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CA_{ij}^k = \frac{(X_{ij}^k / X_{ij})}{(X_{iw}^k / X_{iw})} \quad (3-6)$$

MCA_{ij}^k : i 국가의 j 경제권에서 k 상품(산업)의 시장비교우위지수

X_{ij}^k : i 국가의 j 경제권으로의 k 상품(산업) 수출액

X_{ij} : i 국가의 j 경제권으로의 총수출액

X_{iw}^k : i 국가의 k 상품(산업) 대세계 수출액

X_{iw} : i 국가의 대세계 총수출액

식(3-6)을 해석하면 k 상품(품목분류)의 수출에 있어서, i 국이 j 경제권으로 수출하는 총수출액 중 k 상품(품목분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분자값)과 i 국이 전세계로 수출하는 총수출액 중 k 상품(품목분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분모값) 간의 비교를 통해 어떤 것이 더 큰지, 또는 작은지를 살펴보는 개념이다. 전 세계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품목분류) 중에서 k 상품(품목분류)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과 j 경제권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품목분류) 중에서 k 상품(품목분류)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MCA가 1 보다 크다는 것은 특정 상품(품목분류)의 특정 경제권(국가)에서의 수출성과가 전 세계에서 수출성과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 보다 작다는 것은 반대로 그 성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MCA 값의 범위를 ‘경쟁력이 매우 높음($3.0 \leq MCA$)’, ‘경쟁

29) 모수원, 정홍영, 이광배,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부산항의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1권 제3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5.9, p.142.

력이 높음($1.5 \leq MCA < 3.0$), '경쟁력이 다소 높음($1.0 \leq MCA < 1.5$)', '경쟁력이 다소 낮음($0.5 \leq MCA < 1.0$)', '경쟁력이 낮음($0.0 \leq MCA < 0.5$)로 구분하여 적용한다.³⁰⁾



30) 심재희, “기술수준별 한국 수출제품의 대 민트(MINTs) 국제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p.291.

제3절 수출경쟁력 추이 분석

1. 국제시장점유율(IMS)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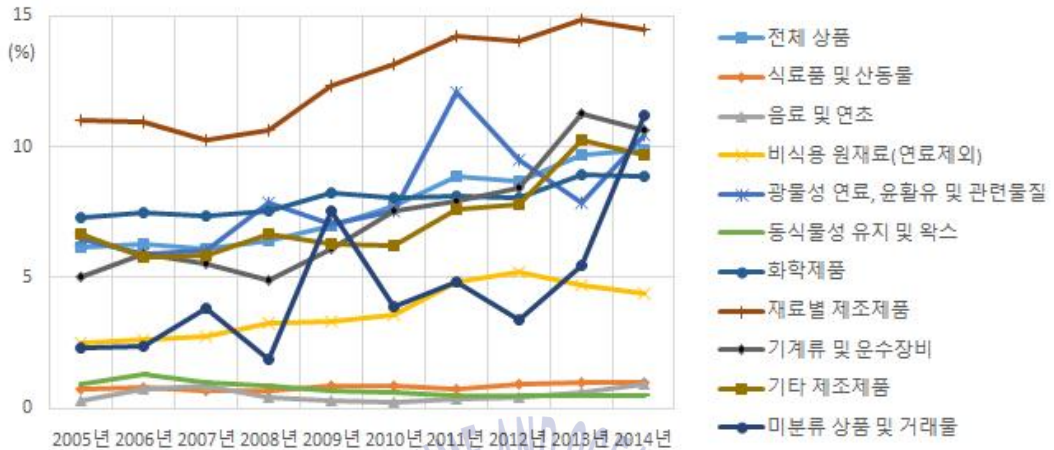
VIP 경제권 수입시장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상품은 그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0년에 7.81%의 점유율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7년 6.12%의 점유율을 나타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7%, 2011년 8.86%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는 점유율이 9%를 돌파하여 2013년 9.71%, 2014년 9.86%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VIP 경제권내에서 국산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약 10%에 육박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입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규모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해당 시장(국가, 경제권)의 교역규모와 같은 절대적 수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시장점유율만으로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추세는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도별 시장점유율의 추이를 봤을 때 VIP 경제권에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 분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 분류는 주로 재료에 의해서 분류하는 제조업 생산품인 ‘재료별 제조제품’이다. ‘재료별 제조제품’의 경우 2001년 14.77%의 점유율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 10.27%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14.84% 즉, 약 15%에 해당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모든 품목 분류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료별 제조제품’의 경우 본 논문 통계에 포함하고 있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장점유율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매년 10%를 초과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크면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해당 품목 분류에서 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 VIP 경제권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 분류로는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연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등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분류에서는 간혹 한두 해 정도에 1%를 넘어 약 2% 가까이 점유율이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거의 모든 연도에서 1%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의 경우 약 2% 정도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5.2%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도 등락이 있긴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에는 12.08%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나머지 품목 분류에서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3가지 품목 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 분류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화학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모두 2005년 기준으로 그 점유율이 각 7.29%, 5.03%, 6.66%, 2.32%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통계상 가장 최근 연도인 2014년에는 각 8.89%, 10.64%, 9.69%, 11.19%를 기록하여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VIP 경제권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2000년부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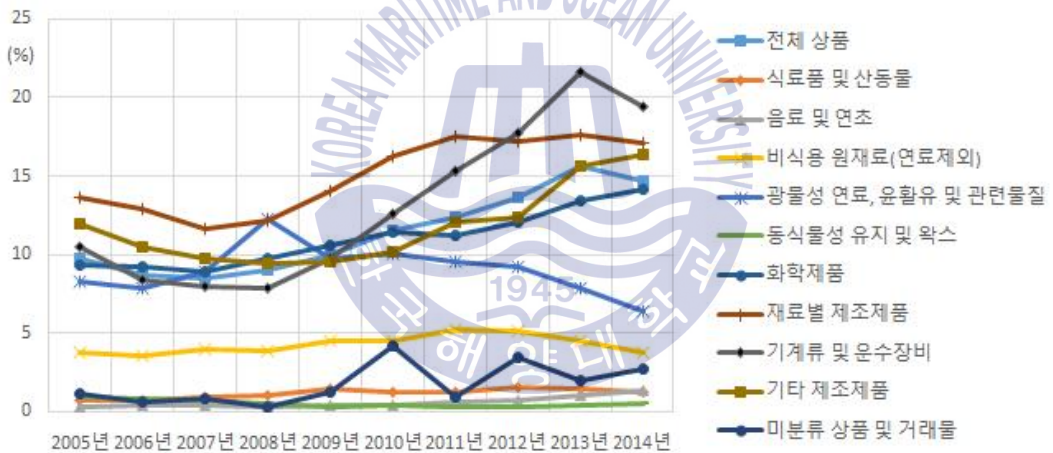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7.81	7.67	7.64	6.82	6.54	6.15	6.32	6.12
식료품 및 산동물	1.10	1.20	0.84	0.68	0.63	0.74	0.79	0.68
음료 및 연초	n.a	1.98	0.24	0.52	0.19	0.29	0.73	0.85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08	3.01	2.81	2.86	2.66	2.53	2.61	2.73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3.60	5.32	4.24	2.01	3.62	6.48	5.94	6.06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n.a	1.93	0.87	0.96	0.86	0.92	1.31	0.98
화학제품	10.22	9.96	9.02	7.71	8.09	7.29	7.52	7.36
재료별 제조제품	14.58	14.77	13.87	13.60	12.01	10.99	10.98	10.27
기계류 및 운수장비	7.70	6.83	7.87	7.29	6.59	5.03	5.90	5.55
기타 제조제품	10.94	10.73	8.79	7.64	8.30	6.66	5.76	5.85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7.94	6.47	6.98	7.35	4.43	2.32	2.36	3.84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6.40	7.00	7.71	8.86	8.69	9.71	9.86	n.a
식료품 및 산동물	0.67	0.89	0.85	0.77	0.92	0.97	0.98	n.a
음료 및 연초	0.44	0.30	0.25	0.35	0.44	0.59	0.96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24	3.32	3.58	4.84	5.20	4.72	4.37	n.a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7.86	7.07	7.55	12.08	9.51	7.84	10.46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88	0.67	0.62	0.49	0.50	0.51	0.47	n.a
화학제품	7.54	8.26	8.03	8.11	8.05	8.94	8.89	n.a
재료별 제조제품	10.63	12.33	13.15	14.24	14.05	14.84	14.51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4.91	6.10	7.58	7.94	8.43	11.24	10.64	n.a
기타 제조제품	6.70	6.30	6.23	7.61	7.79	10.26	9.69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90	7.56	3.92	4.85	3.36	5.49	11.19	n.a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VIP 경제권내의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상품 수입액이, 베트남이 전 세계로부터 수입한 전체 상품 수입액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2002년까지 상승하여 11.5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 8.5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1.5%를 기록하고 점차 상승하여 2013년에는 15.66%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14년에는 14.7%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증가되는 추세이다. 일국의 수입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규모가 매우 큰 편이라 하겠다.

그림 3-2.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표 3-2.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2000년부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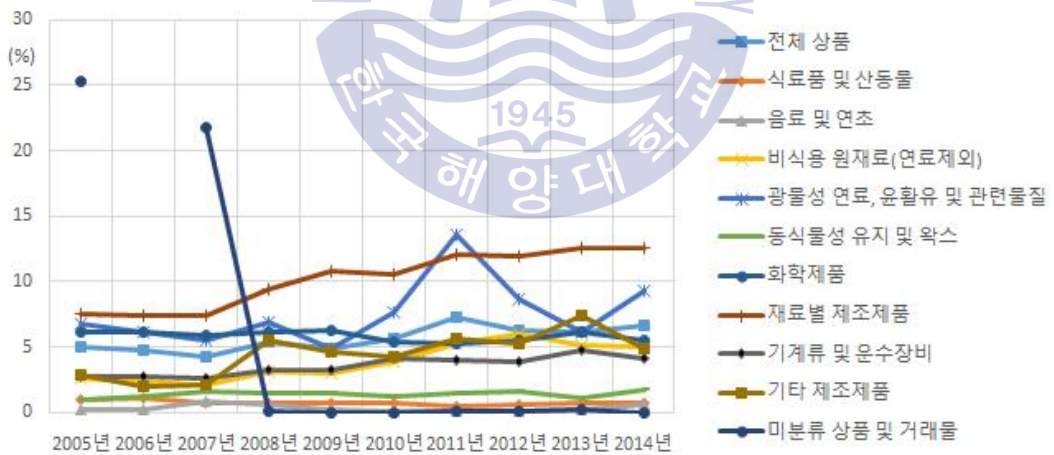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1.21	11.63	11.54	10.40	10.51	9.78	8.71	8.51
식료품 및 산동물	2.26	2.76	1.15	0.72	0.53	0.75	0.72	0.89
음료 및 연초	n.a	0.07	0.30	0.23	0.19	0.31	0.42	0.3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8.25	8.29	5.98	5.75	4.33	3.75	3.54	4.0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80	5.13	5.49	3.19	8.38	8.30	7.84	8.9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n.a	0.81	0.48	0.81	0.80	0.92	0.80	0.76
화학제품	12.01	10.94	9.51	8.64	10.22	9.33	9.25	8.91
재료별 제조제품	19.45	17.21	16.80	16.44	14.36	13.63	12.88	11.62
기계류 및 운수장비	9.16	10.99	12.69	10.57	10.55	10.44	8.42	7.98
기타 제조제품	21.28	19.11	14.00	14.38	15.77	11.93	10.48	9.76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6.86	5.03	4.14	3.43	1.57	1.15	0.56	0.77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8.99	9.97	11.50	12.34	13.65	15.66	14.70	n.a
식료품 및 산동물	1.00	1.44	1.23	1.20	1.58	1.45	1.29	n.a
음료 및 연초	0.28	0.37	0.45	0.63	0.76	0.98	1.39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90	4.50	4.50	5.21	5.10	4.51	3.72	n.a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2.30	9.72	10.09	9.53	9.24	7.87	6.44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55	0.31	0.37	0.26	0.31	0.44	0.51	n.a
화학제품	9.78	10.58	11.40	11.23	12.09	13.40	14.12	n.a
재료별 제조제품	12.18	14.05	16.25	17.51	17.16	17.66	17.06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7.90	9.75	12.59	15.28	17.72	21.59	19.43	n.a
기타 제조제품	9.41	9.51	10.18	12.02	12.34	15.67	16.36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33	1.25	4.19	0.89	3.44	1.93	2.69	n.a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품목 분류별로 살펴보면,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가 꾸준히 약 5%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식료품 및 산동물’, ‘음료 및 연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이 점유율이 낮다.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은 2008년 12.3%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나머지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등은 점유율이 높고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학제품’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4.12%를 기록하여 15%에 육박하고 있다. ‘재료별 제조제품’은 2010년 15%를 초과하여 16.25%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15%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계류 및 운수장비’는 2008년 7.9%의 점유율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모든 품목 분류에서 최초로 20%를 초과하는 21.59%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기타 제조제품’의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6.36%를 기록하였다.

그림 3-3.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표 3-3.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6.21	7.14	5.26	4.69	4.18	4.97	4.71	4.29
식료품 및 산동물	0.86	0.84	0.88	0.72	0.84	0.96	1.12	0.70
음료 및 연초	0.02	0.06	0.06	0.17	0.13	0.24	0.26	0.84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58	2.52	2.50	2.40	2.56	2.59	2.36	2.15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4.59	6.91	3.35	0.35	0.58	6.78	6.19	5.4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62	2.11	1.92	1.71	1.27	0.95	1.18	1.57
화학제품	10.03	9.94	8.46	7.15	7.16	6.20	6.18	5.86
재료별 제조제품	13.53	14.12	11.73	11.21	9.58	7.58	7.35	7.36
기계류 및 운수장비	3.64	5.84	3.91	6.14	4.57	2.76	2.74	2.64
기타 제조제품	8.43	7.11	5.78	4.10	4.80	2.88	2.00	2.15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44.85	49.97	84.69	64.52	11.36	25.33	n.a	21.74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5.36	4.90	5.68	7.33	6.24	6.21	6.65	n.a
식료품 및 산동물	0.78	0.76	0.67	0.54	0.65	0.73	0.73	n.a
음료 및 연초	0.56	0.28	0.10	0.11	0.16	0.23	0.57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08	3.02	3.84	5.21	6.03	5.10	4.96	n.a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6.96	4.95	7.70	13.65	8.62	6.15	9.35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46	1.43	1.29	1.54	1.67	1.06	1.70	n.a
화학제품	6.09	6.33	5.44	5.24	5.56	6.09	5.56	n.a
재료별 제조제품	9.47	10.84	10.62	12.08	11.89	12.54	12.54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3.31	3.25	4.18	3.98	3.86	4.75	4.18	n.a
기타 제조제품	5.49	4.61	4.20	5.67	5.29	7.44	4.86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5	0.01	0.01	0.04	0.04	0.21	0.03	n.a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한국 상품(전체)은 약 5% 정도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약 4~5%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0년대에는 약 6~7%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미미하기는 하나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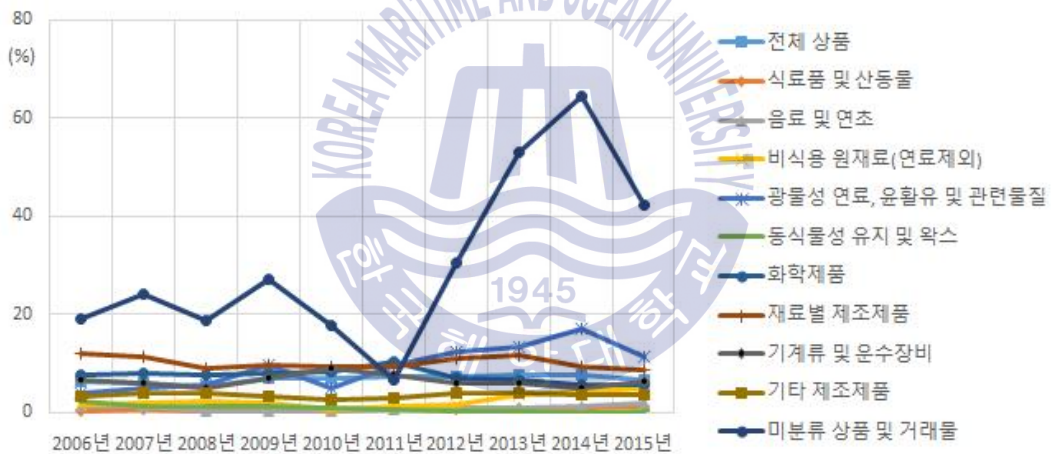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점유율을 보여주는 품목군은 ‘재료별 제조제품’이다. 2009년부터 10%를 초과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2.54%를 기록하고 있다.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도 약 5~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한 해에는 10%를 초과하여 13.65%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연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는 조금씩 증가하여 2012년 6.03%를 기록한 뒤 2013년, 2014년에는 연속해서 감소하였다. ‘화학제품’의 경우 2000년대에는 약 6~10%의 점유율을 나타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0년대에는 약 5~6%의 점유율을 보였다. ‘기계류 및 운수장비’는 전 기간에서 약 3~4%의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타 제조제품’은 2000년대에는 그 점유율이 감소하다가 2008년에 증가하여 5.49%를 기록하고 등락을 반복하여 2013년에 7.44%를 기록하고 이듬해 다시 감소하였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상품에 대하여 산출한 IMS값은 전 기간에서 약 4~7%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추세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점유율이 약 4~7%를 나타내고 있고 2010년대에는 2010년 6.91%, 2015년 6.49%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7%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0년대에는 약 6~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향상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겠다.

필리핀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상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품목 분류별로 살펴 보면, 일단 다른 품목군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이다. 여타의 다른 품목 분류에서는 보통 10% 이내의 점유율, 최대 약 1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에서는 약 50~60%의 점유율을 보이는 연도도 눈에 띈다. 이것은 해당 품목분류로 구분되는 상품군에 대한 거래금액의 액수가 커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IMS 수치를 나타내는 수식에서 분모의 값이 적기 때문이다. 즉, 필리핀의 해당 품목분류에 대한 총수입액이 다른 품목분류에 대한 총수입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액수에 해당된다. 결국 전 세계로부터 수입한 총액은 적지만 한국으로부터 필리핀이 수입한 액수의 비중이 커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³¹⁾

그림 3-4. 필리핀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2011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도에서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로 분류되는 상품들의 수입액(전 세계부터의 총수입액과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액 모두)

31) 2015년도 기준 필리핀의 수입총액 약 700억 달러에서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로 분류되는 수입액은 약 2억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기계류 및 운수장비’로 분류되는 수입액은 약 340억 달러에 육박한다. (부록 8 참조)

은 거의 대부분(어떤 해에는 전액 모두) 하위분류에 속하는 SITC code 97로 분류되는 ‘비화폐성 금(금광 및 그 정광 제외)’ 품목의 수입액에 해당한다.³²⁾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품목분류로는 HS code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1년도 한 해에는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의 거의 대부분이 SITC code 93으로 분류되는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특별 거래물 및 상품’에 해당하는 수입액(대세계, 대한민국 모두)이다.

다른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연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시장과는 달리 필리핀 시장에서는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기타 제조제품’에서도 점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품목분류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의 경우 2010년 이후에는 점유율이 점차 크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17.09% 자치하였다. 재료별 제조제품도 약 9~12%의 점유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화학제품의 경우 2011년에 최고치 10.35%이고 그 해 전으로는 증가추세, 이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기계류 및 운수장비’는 2008년 4.97%까지 하락하였다가 상승하여 2010년에 8.89%를 기록하였고,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4년 5.12% 점유율을 보이고 2015년에는 반등하여 6.31%를 차지하였다.

32) SITC Rev.3에서 SITC code는 Section(1단위) 10개, Division(2단위) 67개, Group(3단위) 261개, Subgroup(4단위) 1,033개, Item(5단위) 3,121개로 분류되어 계층구조를 이룬다.

표 3-4. 필리핀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IMS(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7.81	6.29	7.58	6.33	6.19	4.82	6.16	5.87
식료품 및 산동물	1.07	1.04	0.67	0.61	0.37	0.43	0.34	0.46
음료 및 연초	1.16	5.13	0.36	0.88	0.22	0.32	1.32	1.22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81	0.99	0.99	1.17	0.91	0.65	1.67	2.11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3.05	2.97	5.15	4.40	7.02	4.18	3.84	4.8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33	3.61	0.79	0.73	0.71	0.90	2.16	1.26
화학제품	9.17	9.11	9.57	7.60	7.25	6.73	7.73	7.84
재료별 제조제품	11.74	13.07	12.11	11.32	10.63	10.97	12.05	11.35
기계류 및 운수장비	9.15	6.27	8.14	6.67	6.23	4.50	6.61	5.94
기타 제조제품	4.32	3.97	4.82	3.41	3.25	3.79	3.26	3.89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2.85	3.62	8.46	13.30	22.05	10.91	19.20	24.22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5.18	6.89	6.91	7.29	7.24	7.69	7.73	6.49
식료품 및 산동물	0.29	0.57	0.73	0.78	0.70	0.82	1.02	1.26
음료 및 연초	0.39	0.22	0.39	0.64	0.98	1.08	1.42	2.08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15	1.84	0.65	1.13	1.65	3.63	4.26	4.8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5.74	9.78	5.02	9.57	12.46	13.49	17.09	11.51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39	1.13	0.88	0.47	0.32	0.20	0.09	0.23
화학제품	7.51	8.03	8.26	10.35	7.14	6.78	5.66	5.54
재료별 제조제품	9.09	9.75	9.43	9.41	11.06	11.81	9.36	8.82
기계류 및 운수장비	4.97	7.11	8.89	7.59	5.85	6.10	5.12	6.31
기타 제조제품	4.08	3.17	2.59	2.81	4.04	4.11	3.48	3.64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8.69	27.24	17.85	6.71	30.66	53.01	64.62	4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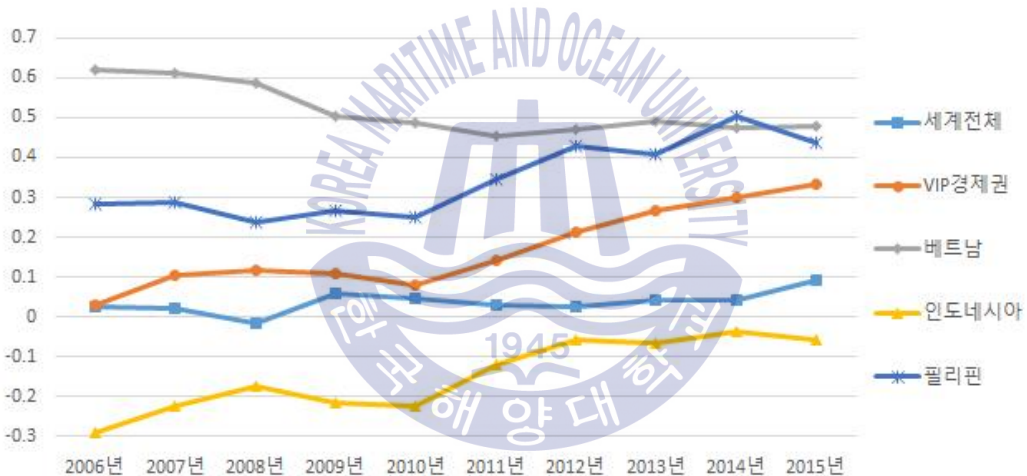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2. 무역특화지수(TSI) 추이 분석

다음으로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상품 무역에 대하여 세계시장 전체에서의 무역특화지수와 비교할 수 있다. 수출상품 전체에 대하여 한국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2008년에는 -0.0155로 음수값을 보였으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양수값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절대값은 모든 연도에서 0.1 미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은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있지만 거의 중립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해당 시장에서 전체 상품 무역에 대한 한국의 TSI 추이(최근 10년)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VIP경제권 시장에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부터 모든 연도에서 양수 값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든 연도에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보다 대VIP경제권 무역특화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세계 수출경쟁력 보다는 VIP경제권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7년에 그 절대값이 처음으로 0.1을 초과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0.2139, 2015년 0.3350을 기록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해당 시장에서 전체 상품 무역에 대한 한국의 TSI(2000년부터)

연도	세계전체	VIP경제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0년	0.0354	0.0705	0.6789	-0.2028	0.2986
2001년	0.0320	0.0610	0.6356	-0.1540	0.1645
2002년	0.0329	0.0827	0.6530	-0.2006	0.2247
2003년	0.0402	0.0739	0.6675	-0.2136	0.2047
2004년	0.0614	0.0591	0.6573	-0.2678	0.2290
2005년	0.0425	0.0219	0.6636	-0.2373	0.1632
2006년	0.0253	0.0312	0.6188	-0.2898	0.2851
2007년	0.0201	0.1041	0.6108	-0.2246	0.2890
2008년	-0.0155	0.1155	0.5860	-0.1759	0.2362
2009년	0.0589	0.1072	0.5021	-0.2139	0.2654
2010년	0.0462	0.0793	0.4869	-0.2224	0.2520
2011년	0.0285	0.1410	0.4518	-0.1186	0.3453
2012년	0.0265	0.2139	0.4720	-0.0581	0.4286
2013년	0.0410	0.2651	0.4923	-0.0655	0.4065
2014년	0.0433	0.2998	0.4731	-0.0361	0.5018
2015년	0.0938	0.3350	0.4782	-0.0584	0.4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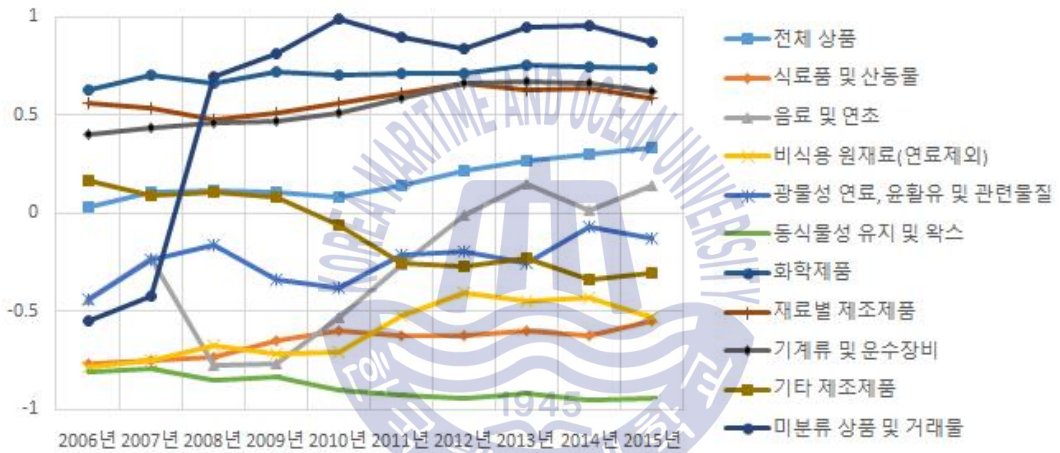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VIP경제권 3국의 나라별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대베트남과 대필리핀 무역특화지수가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보다 모든 연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대세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국가 중 대베트남 TSI 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어 한국은 베트남에서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에 0.6789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0.4782로 수출경쟁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2009년 사이는 0.5 이상으로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

가 있는 상태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약 0.4 정도를 기록하며 다소 비교우위가 있는 상태를 보였다.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대필리핀 TSI 값은 2000년 0.2986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4년에는 0.5018까지 기록하며 필리핀에서 한국의 비교우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인도네시아 TSI 값은 전체 기간에서 음수값을 보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수출은 다소 강한 비교열위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 -0.2028에서 2014년에는 -0.0361까지 상승하여 점차 비교열위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 VIP 경제권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표 3-6. VIP 경제권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2000년부터)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0.0705	0.0610	0.0827	0.0739	0.0591	0.0219	0.0312	0.1041
식료품 및 산동물	-0.6863	-0.6613	-0.7521	-0.7829	-0.8043	-0.7893	-0.7685	-0.7537
음료 및 연초	0.2385	0.3111	0.1095	0.1873	0.1266	-0.4124	-0.4351	-0.2268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6598	-0.7326	-0.6949	-0.6629	-0.6535	-0.7421	-0.7791	-0.7528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7068	-0.6420	-0.6973	-0.8389	-0.6526	-0.4204	-0.4381	-0.240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n.a	n.a	n.a	-0.9057	n.a	-0.8578	-0.8107	-0.7920
화학제품	0.7645	0.7920	0.6922	0.6685	0.7090	0.6980	0.6297	0.7013
재료별 제조제품	0.5173	0.4963	0.5085	0.4796	0.5443	0.5569	0.5618	0.5364
기계류 및 운수장비	0.3884	0.3067	0.3392	0.3931	0.3823	0.3230	0.3996	0.4326
기타 제조제품	0.4029	0.3647	0.2831	0.2370	0.2540	0.2053	0.1640	0.0910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3093	-0.2158	-0.1129	0.2400	0.4629	0.1144	-0.5471	-0.4248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0.1155	0.1072	0.0793	0.1410	0.2139	0.2651	0.2998	0.3350
식료품 및 산동물	-0.7293	-0.6523	-0.6016	-0.6216	-0.6245	-0.5979	-0.6212	-0.5457
음료 및 연초	-0.7736	-0.7655	-0.5327	-0.2604	-0.0134	0.1485	0.0165	0.1372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6757	-0.7145	-0.7073	-0.5213	-0.4027	-0.4466	-0.4290	-0.5325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1645	-0.3343	-0.3793	-0.2149	-0.1934	-0.2541	-0.0691	-0.1285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8503	-0.8357	-0.9002	-0.9285	-0.9456	-0.9199	-0.9520	-0.9442
화학제품	0.6623	0.7194	0.7011	0.7136	0.7134	0.7589	0.7472	0.7368
재료별 제조제품	0.4754	0.5116	0.5644	0.6098	0.6606	0.6286	0.6351	0.5847
기계류 및 운수장비	0.4625	0.4653	0.5080	0.5856	0.6612	0.6725	0.6658	0.6163
기타 제조제품	0.1045	0.0819	-0.0643	-0.2565	-0.2663	-0.2280	-0.3346	-0.3004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6928	0.8171	0.9862	0.8995	0.8355	0.9523	0.9581	0.8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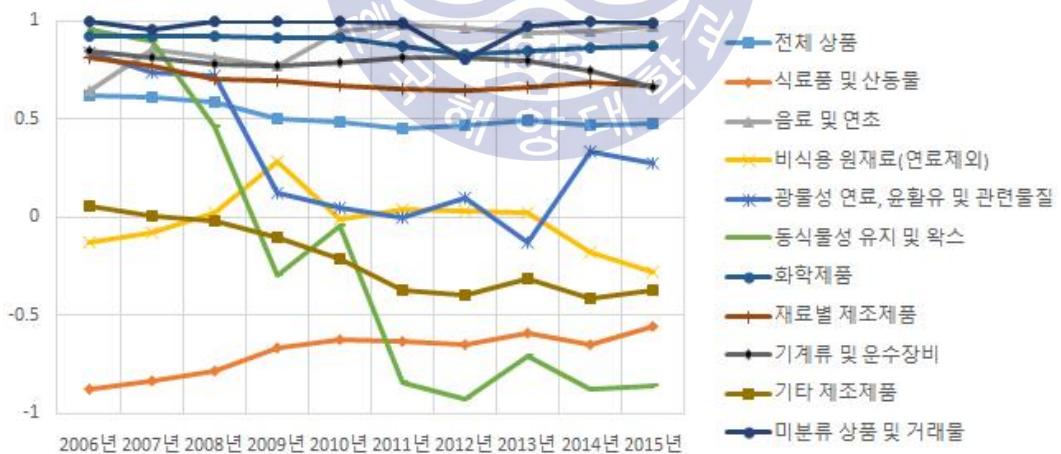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품목별로 살펴보면, VIP경제권에서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화학제품, 기계류 및 운송장비, 재료별 제조제품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기타 제조제품,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식료품 및 산동물,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및 연초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4년 까지는 비교우위, 2005년~2012년 까지는 비교열위, 2013년부터는 다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본 4가지 품목분류에서는 2010년부터는 모든 연도에서 0.5 이상의 값을 가지며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 상태를 보였다. 기타 제조제품은 2009년까지는 다소 비교우위가 있는 상태였으나, 2010년부터는 다소 비교열위가 있는 상태를 보였다. 식료품 및 산동물,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계속해서 -0.5 이하를 기록하여 수입특화가 강한 비교열위 상태를 보였는데, 특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의 경우 수입특화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7. 베트남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표 3-7. 베트남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2000년부터)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0.6789	0.6356	0.6530	0.6675	0.6573	0.6636	0.6188	0.6108
식료품 및 산동물	-0.8842	-0.8958	-0.9238	-0.8994	-0.8986	-0.8851	-0.8775	-0.8321
음료 및 연초	0.9735	0.6926	0.9900	0.8848	0.9332	0.7821	0.6419	0.8585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2882	0.2580	0.1653	0.1376	0.0384	0.0019	-0.1307	-0.081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9282	0.6995	0.6351	0.7102	0.6311	0.8785	0.8379	0.7351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n.a	n.a	n.a	0.9904	n.a	0.9900	0.9603	0.9007
화학제품	0.9652	0.9820	0.9752	0.9704	0.9694	0.9421	0.9233	0.9245
재료별 제조제품	0.8630	0.8737	0.9056	0.8637	0.8325	0.8216	0.8097	0.7738
기계류 및 운수장비	0.8416	0.8230	0.7619	0.8456	0.8480	0.8646	0.8450	0.8125
기타 제조제품	0.2512	0.1541	0.1544	0.2195	0.2599	0.1942	0.0549	0.006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7923	0.9871	0.9430	0.9667	0.9987	0.9981	0.9986	0.9557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0.5860	0.5021	0.4869	0.4518	0.4720	0.4923	0.4731	0.4782
식료품 및 산동물	-0.7830	-0.6652	-0.6223	-0.6290	-0.6472	-0.5937	-0.6514	-0.5528
음료 및 연초	0.8141	0.7727	0.9478	0.9778	0.9644	0.9365	0.9504	0.9730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0223	0.2866	-0.0099	0.0366	0.0284	0.0224	-0.1762	-0.278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7207	0.1251	0.0496	-0.0048	0.0979	-0.1234	0.3370	0.278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4639	-0.2937	-0.0430	-0.8436	-0.9285	-0.7076	-0.8797	-0.8582
화학제품	0.9233	0.9154	0.9136	0.8741	0.8269	0.8515	0.8666	0.8702
재료별 제조제품	0.7086	0.6983	0.6697	0.6508	0.6485	0.6589	0.6839	0.6708
기계류 및 운수장비	0.7796	0.7745	0.7876	0.8135	0.8165	0.7932	0.7461	0.6644
기타 제조제품	-0.0223	-0.1056	-0.2129	-0.3725	-0.3935	-0.3139	-0.4123	-0.3697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9985	0.9993	0.9995	0.9876	0.8060	0.9760	0.9996	0.9898

주 : SITC Rev.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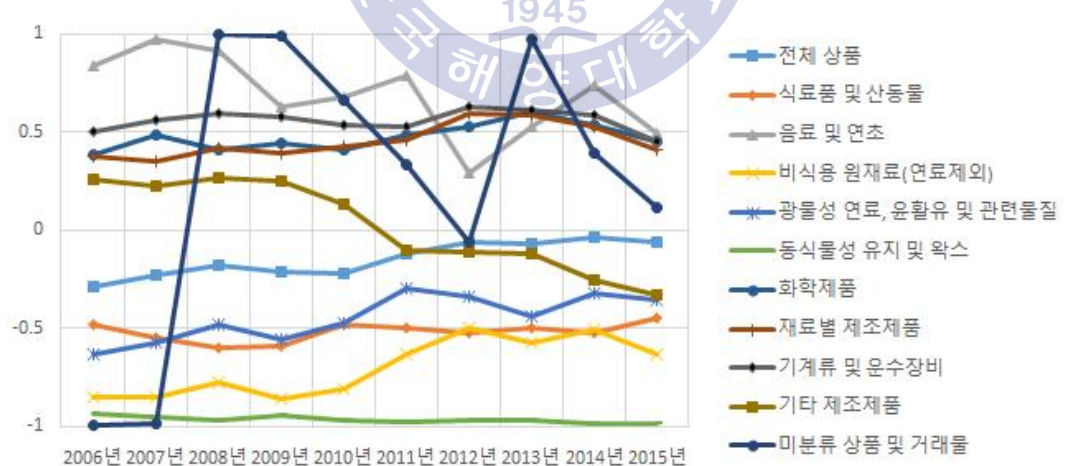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VIP경제권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음료 및 연초, 화학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재료별 제조제품 등 5가지 품목분류에서 지속적으로 0.5 이상의 TSI 값을 기록하며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가 있는 상태를 보였다.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은 2008년까지는 마찬가지로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에 있는 상태였으나,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해 음수값을 보이기도 하고 약한 비교우위에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에서는 0(중립상태)에 가까운 값을 기록했으나 최근 비교열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는 2009년부터 비교열위로 전환되어 10가지 품목분류 중 가장 수입특화에 강한 비교열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 제조제품도 점차 감소하여 2008년부터 음수값을 기록하고 시간이 갈수록 비교열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식료품 및 산동물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0.5 미만으로 수입특화가 강한 비교열위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 비교열위의 정도는 미세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림 3-8. 인도네시아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표 3-8. 인도네시아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2000년부터)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0.2028	-0.1540	-0.2006	-0.2136	-0.2678	-0.2373	-0.2898	-0.2246
식료품 및 산동물	-0.5742	-0.5339	-0.5780	-0.5628	-0.6161	-0.5528	-0.4766	-0.5474
음료 및 연초	0.9717	0.9024	0.7503	0.8831	0.8374	0.9383	0.8426	0.969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7427	-0.8083	-0.7872	-0.7870	-0.7521	-0.8274	-0.8498	-0.8501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8404	-0.7824	-0.8591	-0.9902	-0.9315	-0.5588	-0.6311	-0.5705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9687	-0.9334	-0.9538	-0.9447	-0.9448	-0.9419	-0.9333	-0.9476
화학제품	0.6502	0.7075	0.5130	0.4838	0.5421	0.5337	0.3873	0.4849
재료별 제조제품	0.3242	0.2912	0.2310	0.2083	0.3111	0.3726	0.3806	0.3550
기계류 및 운수장비	0.7461	0.6997	0.6229	0.6341	0.6813	0.5715	0.5028	0.5619
기타 제조제품	0.5143	0.4851	0.3332	0.2257	0.2595	0.2152	0.2572	0.2222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9578	-0.5993	-0.6279	0.3904	0.9407	-0.9279	-0.9896	-0.9874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0.1759	-0.2139	-0.2224	-0.1186	-0.0581	-0.0655	-0.0361	-0.0584
식료품 및 산동물	-0.6016	-0.5879	-0.4812	-0.5000	-0.5208	-0.5010	-0.5222	-0.4465
음료 및 연초	0.9122	0.6262	0.6764	0.7871	0.2966	0.5259	0.7389	0.493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7760	-0.8555	-0.8082	-0.6341	-0.4999	-0.5693	-0.5089	-0.6308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4821	-0.5588	-0.4690	-0.2931	-0.3389	-0.4424	-0.3250	-0.352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9672	-0.9405	-0.9661	-0.9740	-0.9704	-0.9708	-0.9841	-0.9854
화학제품	0.4116	0.4471	0.4069	0.4859	0.5256	0.6028	0.5339	0.4482
재료별 제조제품	0.4174	0.3929	0.4280	0.4629	0.5989	0.5867	0.5264	0.4127
기계류 및 운수장비	0.5912	0.5793	0.5398	0.5245	0.6328	0.6157	0.5837	0.4532
기타 제조제품	0.2713	0.2468	0.1293	-0.0995	-0.1113	-0.1177	-0.2532	-0.332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9990	0.9938	0.6601	0.3355	-0.0612	0.9764	0.3975	0.1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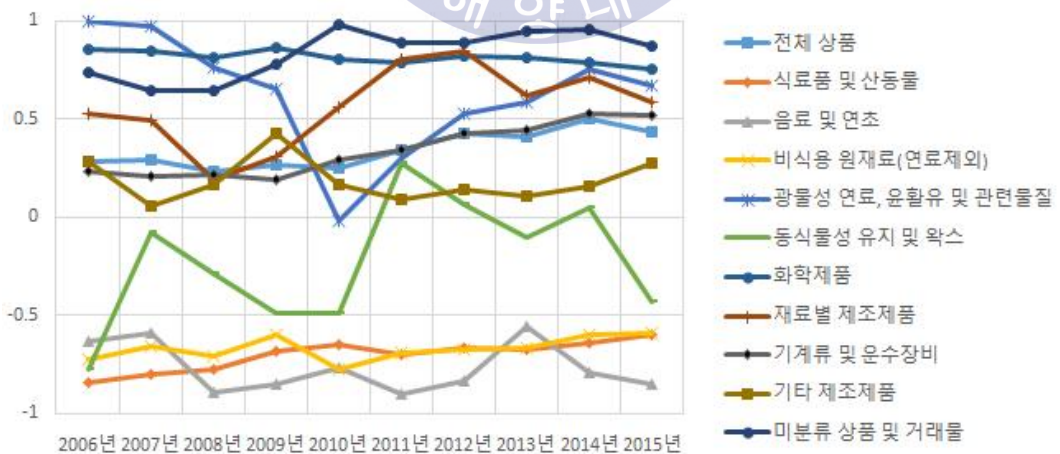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인도네시아에서도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음료 및 연초, 기계류 및 운수장비, 재료별 제조제품, 화학제품 등 5가지 품목분류에서 대부분의 연도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액, 수입액에서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0.01%에 불과해 아주 낮은 금액이다. 그래서 수출액은 거의 없는데 수입액이 조금 있거나, 수입액은 거의 없는데 수출액이 조금 있더라도 -1에 가까운 또는 +1에 가까운 극단적이 값을 보이며 연도별로 수출특화 또는 수입특화를 보이는 등 그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음료 및 연초의 경우에도 그 수출액과 수입액의 비중이 거의 매년 0.1% 미만이지만, 어쨌든 2012년, 2015년을 제외하고는 TSI 값이 0.5 이상으로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기계류 및 운수장비, 재료별 제조제품, 화학제품의 경우 거래금액이 비교적 많고 특히 수출비중이 높아 TSI 값이 꾸준히 약 0.4 ~ 약 0.6을 기록하고 있다. 기타 제조제품은 2010년까지는 양수 값을 나타냈으나 2011년부터 음수값을 기록하고 점차 비교열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3-9. 필리핀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표 3-9. 필리핀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2000년부터)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0.2986	0.1645	0.2247	0.2047	0.2290	0.1632	0.2851	0.2890
식료품 및 산동물	-0.6245	-0.5425	-0.7114	-0.8122	-0.8544	-0.8591	-0.8448	-0.7991
음료 및 연초	-0.2179	-0.1408	-0.4235	-0.3186	-0.2988	-0.6955	-0.6300	-0.5934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5733	-0.5801	-0.5101	-0.3485	-0.6209	-0.6799	-0.7227	-0.658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8226	0.5346	0.6615	0.5643	0.8699	0.9982	1.0000	0.9757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672	-0.7660	-0.8614	-0.9078	-0.8920	-0.8871	-0.7772	-0.0801
화학제품	0.8563	0.8218	0.8497	0.8309	0.8255	0.7964	0.8587	0.8494
재료별 제조제품	0.6696	0.6198	0.6522	0.5565	0.6049	0.5352	0.5286	0.4963
기계류 및 운수장비	0.2012	0.0330	0.1229	0.1409	0.1126	0.0583	0.2346	0.2076
기타 제조제품	0.4686	0.6326	0.5504	0.3145	0.2262	0.2189	0.2884	0.0594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4040	-0.2086	-0.0184	0.1756	0.3677	0.6381	0.7412	0.6432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0.2362	0.2654	0.2520	0.3453	0.4286	0.4065	0.5018	0.4386
식료품 및 산동물	-0.7712	-0.6819	-0.6516	-0.6977	-0.6632	-0.6728	-0.6430	-0.5945
음료 및 연초	-0.8894	-0.8499	-0.7657	-0.8982	-0.8335	-0.5555	-0.7876	-0.8522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7088	-0.5981	-0.7723	-0.6915	-0.6748	-0.6639	-0.6001	-0.5936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7649	0.6559	-0.0212	0.3029	0.5257	0.5905	0.7522	0.672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2860	-0.4930	-0.4913	0.2757	0.0680	-0.1050	0.0500	-0.4267
화학제품	0.8134	0.8643	0.8023	0.7861	0.8226	0.8103	0.7915	0.7581
재료별 제조제품	0.1889	0.3067	0.5617	0.8085	0.8440	0.6238	0.7146	0.5876
기계류 및 운수장비	0.2162	0.1909	0.2943	0.3414	0.4235	0.4419	0.5293	0.5194
기타 제조제품	0.1628	0.4275	0.1659	0.0940	0.1388	0.1068	0.1623	0.271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6438	0.7806	0.9793	0.8890	0.8899	0.9469	0.9577	0.8686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나머지 4가지 품목분류는 계속해서 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이 경우에는 -0.5 이하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0.3520을 기록하였다. 식료품 및 산동물의 경우 꾸준히 -0.5 언저리를 보여주고 있고,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는 2006년에는 -0.8498를 기록하며 수입특화가 강한 비교우위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약 -0.5에 근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완전수입특화에 가까운 약 -1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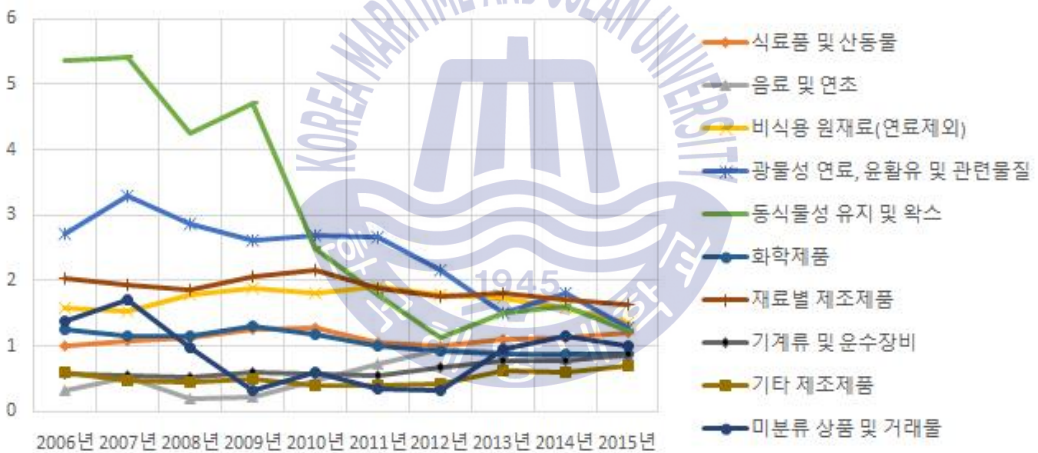
필리핀에서도 앞서 두 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등 6개 품목분류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화학제품은 계속해서 약 0.8 정도의 값을 가지며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가 있는 상태를 보였다.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은 가장 높은 수출특화를 보이다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비교우위 중립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여 2012년부터는 0.5를 초과하고 있다. 재료별 제조제품도 2010년부터는 계속 0.5를 초과하고 있어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계류 및 운수장비도 2006년 약 0.2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2015년에는 0.5를 초과하면서 강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제조제품은 계속해서 0~0.5 사이의 값을 보이며 다소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개 품목분류에서는 주로 0 미만의 값, 즉 비교열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는 2011년, 2012년, 2014년에는 양수값을 가졌으나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음수이고 2015년에는 -0.4267을 기록하며 다시 경쟁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식료품 및 산동물, 음료 및 연초,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등 3가지 품목분류에서는 계속해서 -0.5 미만의 값을 가지며 수입특화가 강한 비교열위의 상태를 보였다.

3.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추이 분석

여기서 MCA 지수는 한국이 세계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금액 중에서 특정 상품의 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이 해당 경제권(VIP 등)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금액 중 특정 상품의 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즉, MCA 지수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전체 상품 대비 특정 상품의 수출비중이 평균(대세계)에서 보다 해당 경제권에서 더 크다는 것으로, 그 경제권에서 특정 상품의 수출성과가 평균보다 더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0. VIP 경제권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먼저,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의 MCA 지수가 2000년 1.4341에서 2007년 5.4150으로 매우 높아졌으나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1.2259을 기록하여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의 대세계 수출액이 2012년에만 약 1억 달러를 기록하고 나머지 모든 해에는 그 미만으로, 비중으로 보면 0.01%에 불과해 MCA 지수식의 분모값이 매우 적어서 나타나는 수치이다.³³⁾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도 2000년 1.3309에서 2007년 3.2964로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1.2259를 기록해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료별 제조제품과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의 경우에는 꾸준히 1.5 이상 3.0 미만을 기록하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자의 경우 2015년에는 1.3612로 다소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1미만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없었으나 2014년, 2015년에는 근소하게 1을 초과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은 2010년까지는 1을 초과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근소하게 1을 미달하려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료품 및 산동물은 2005년까지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부터는 미세하게 1을 초과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분류인 음료 및 연초, 기타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등 3가지 품목분류는 꾸준히 1 미만을 기록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계류 및 운수장비의 경우에는 2007년에는 0.4844로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서 2015년 0.8900로 경쟁력이 다소 낮은 상태로 수출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다.

33) 한국의 연간 대세계 총수출액은 2011년부터 5천억 달러를 넘었고, 2014년에는 약 5,730억 달러를 기록했다. (부록 28 참조)

표 3-10. VIP 경제권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2000년부터)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식료품 및 산동물	0.5500	0.6853	0.5166	0.5731	0.5814	0.7074	1.0089	1.0711
음료 및 연초	0.1237	0.0832	0.1082	0.1570	0.2778	0.4066	0.3242	0.522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4797	1.4875	1.4729	1.5832	1.7218	1.5593	1.5872	1.5222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3309	1.5342	1.5278	0.8758	2.1794	3.6303	2.7210	3.296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4341	2.6008	1.4471	2.0238	3.4406	4.3569	5.3667	5.4150
화학제품	1.7265	1.6962	1.4857	1.3944	1.5445	1.2518	1.2660	1.1639
재료별 제조제품	1.5750	1.6272	1.7909	1.8648	1.9360	1.8654	2.0252	1.9466
기계류 및 운수장비	0.7472	0.7081	0.7216	0.7722	0.6551	0.5559	0.5674	0.5475
기타 제조제품	0.6979	0.6979	0.7678	0.7879	0.8081	0.6185	0.5878	0.4844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2944	0.1191	0.1998	0.1977	0.3153	2.1766	1.3830	1.7024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식료품 및 산동물	1.1210	1.2552	1.2881	1.0630	1.0056	1.0972	1.1404	1.2132
음료 및 연초	0.1976	0.2306	0.4730	0.7345	0.9541	0.8976	0.8088	0.8572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7896	1.8981	1.8108	1.9000	1.7963	1.7232	1.5777	1.3615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2.8742	2.6255	2.7041	2.6786	2.1650	1.5122	1.8044	1.2751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4.2440	4.7056	2.5004	1.7738	1.1256	1.5060	1.6127	1.2259
화학제품	1.1442	1.3043	1.1692	0.9990	0.9284	0.8889	0.8818	0.8880
재료별 제조제품	1.8558	2.0668	2.1563	1.8778	1.7639	1.8196	1.7117	1.6311
기계류 및 운수장비	0.5166	0.5898	0.5842	0.5550	0.6635	0.7817	0.7671	0.8900
기타 제조제품	0.4594	0.4932	0.4025	0.3995	0.4346	0.6319	0.5988	0.691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9724	0.3320	0.6101	0.3427	0.3182	0.9538	1.1585	1.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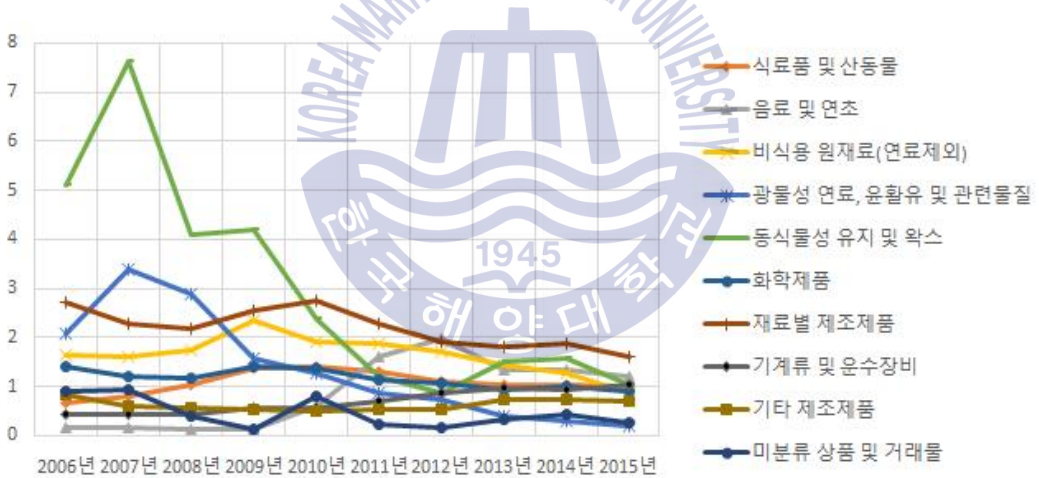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에도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가 높은 경쟁력에서 점차 감소하여 다소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도 2007년에는 3.3890까지 기록하기도 했으나 점차 감소해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재료별 제조제품도 유사한 추세로 2006년에는 2.7004을 기록하고 2015년에는 1.5923으로 점차 감소하기는 했으나, 모든 연도에서 1.5 이상 3.0 미만으로 경쟁력이 높은 상태이다.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도 2000년 1.9479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 1.2629로 그래도 1 이상으로 다소 경쟁력 있는 상태였으나 2015년에는 0.8787로 경쟁력이 다소 낮은 상태가 되었다. 화학제품은 경쟁력이 다소 높은 구간에서 다소 낮은 구간으로 MCA의 수치가 점차 감소하였다.

그림 3-11. 베트남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표 3-11. 베트남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2000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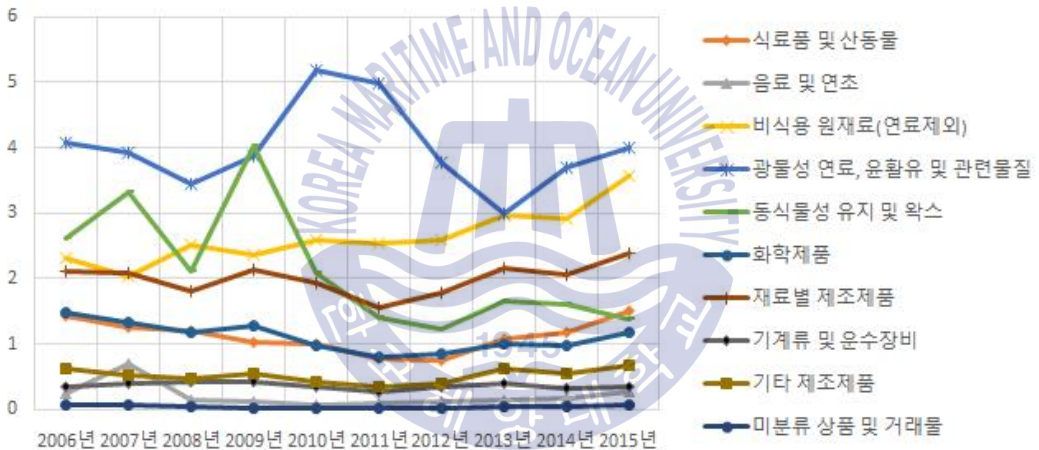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식료품 및 산동물	0.3033	0.3141	0.2085	0.3320	0.3495	0.4597	0.6636	0.8121
음료 및 연초	0.1341	0.0282	0.1268	0.0606	0.1210	0.1562	0.1667	0.157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9479	1.7446	1.5578	1.8525	1.7699	1.8245	1.6517	1.6058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0.8303	1.0342	0.9465	0.9501	2.6364	2.0521	2.0894	3.389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9460	1.7741	1.7932	2.7634	5.1531	5.6704	5.1144	7.6334
화학제품	2.0524	1.7734	1.4535	1.3576	1.4738	1.3653	1.4008	1.1939
재료별 제조제품	2.2652	2.1021	2.5459	2.6207	2.5270	2.5440	2.7004	2.2856
기계류 및 운수장비	0.4757	0.5478	0.5226	0.5428	0.4618	0.4694	0.4223	0.4389
기타 제조제품	1.2326	1.1164	1.1832	1.2334	1.2669	1.0511	0.8330	0.595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112	0.0749	0.0337	0.0786	0.1933	2.1430	0.9013	0.9189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식료품 및 산동물	1.0260	1.3721	1.3955	1.2920	1.0968	1.0204	1.0204	0.9873
음료 및 연초	0.1382	0.1328	0.6054	1.6025	1.9686	1.3326	1.3242	1.199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7523	2.3495	1.9000	1.8813	1.7019	1.4460	1.2629	0.8787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2.8747	1.5833	1.2565	0.8649	0.7181	0.4042	0.2993	0.205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4.0939	4.1955	2.3722	1.2189	0.8701	1.5106	1.5610	1.0470
화학제품	1.1841	1.4217	1.3615	1.1503	1.0609	0.9378	0.9959	0.9029
재료별 제조제품	2.1756	2.5326	2.7431	2.2802	1.9030	1.8096	1.8602	1.5923
기계류 및 운수장비	0.4180	0.5634	0.5705	0.7138	0.8674	0.9615	0.9457	1.0204
기타 제조제품	0.5570	0.5450	0.4932	0.5479	0.5442	0.7377	0.7397	0.706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3834	0.1375	0.8056	0.2234	0.1484	0.3243	0.4362	0.2726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나머지 품목분류인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기타 제조제품, 식료품 및 산동물, 기계류 및 운수장비, 음료 및 연초 등 5가지 품목분류는 대부분 1 미만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료 및 연초는 2011년부터는 1을 초과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식료품 및 산동물의 경우에도 2015년에 다시 1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을 약간 상회하였다. 기계류 및 운수장비의 경우 경쟁력이 낮은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점차 상승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5년에는 1.0204로 경쟁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자리잡았다.

그림 3-12. 인도네시아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2010년 5.1790으로 가장 높았으나 감소하였다가 2013년부터 다시 높아졌다.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3709를 기록했다.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는 2007년 2.0450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5년에는 3.5746으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구간으로 들어섰다.

표 3-12. 인도네시아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2000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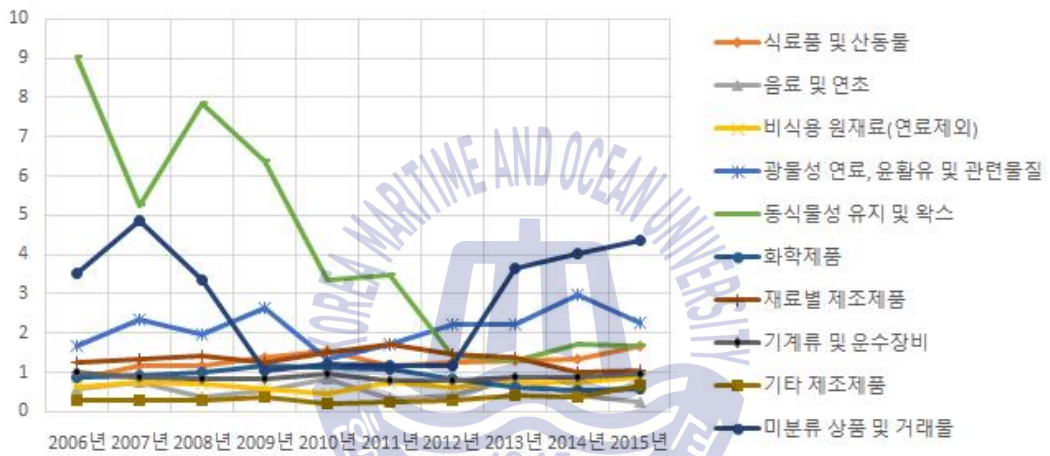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식료품 및 산동물	0.5314	0.4961	0.5997	0.7405	0.8900	0.8963	1.4383	1.2681
음료 및 연초	0.1198	0.1070	0.1098	0.2306	0.3653	0.4343	0.2354	0.707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3466	2.1542	2.3104	2.1852	2.7378	2.0079	2.3243	2.0450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6278	1.9257	1.6828	0.1279	1.0057	5.8115	4.0819	3.925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4861	1.2478	1.9263	2.8149	2.6370	1.6486	2.6201	3.3319
화학제품	2.1940	2.0993	1.9431	1.8426	2.1242	1.3889	1.4793	1.3299
재료별 제조제품	1.9125	1.8057	2.0260	2.0244	2.1904	1.7860	2.1043	2.0757
기계류 및 운수장비	0.5327	0.5506	0.5641	0.7015	0.5786	0.3668	0.3486	0.4033
기타 제조제품	0.7717	0.7127	0.8277	0.7929	0.7677	0.4670	0.6246	0.5240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230	0.0270	0.0417	0.0203	0.0119	0.1212	0.0623	0.0688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식료품 및 산동물	1.1945	1.0236	0.9927	0.7694	0.7604	1.0749	1.1861	1.5059
음료 및 연초	0.1451	0.1106	0.0800	0.1018	0.1230	0.1401	0.1666	0.280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5150	2.3631	2.5943	2.5492	2.5883	2.9802	2.9206	3.5746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3.4432	3.8658	5.1790	4.9952	3.7862	2.9879	3.7131	3.999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2.1168	4.0392	2.0874	1.3975	1.2390	1.6590	1.6166	1.3709
화학제품	1.1895	1.2825	0.9843	0.7957	0.8449	1.0134	0.9777	1.1764
재료별 제조제품	1.8103	2.1269	1.9488	1.5708	1.7873	2.1585	2.0519	2.3934
기계류 및 운수장비	0.4135	0.4282	0.3518	0.2674	0.3499	0.3962	0.3338	0.3425
기타 제조제품	0.4730	0.5389	0.4293	0.3391	0.3887	0.6179	0.5395	0.687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373	0.0162	0.0156	0.0150	0.0176	0.0522	0.0422	0.0655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재료별 제조제품의 경우에는 조금씩 감소하여 2011년에 1.5708로 가장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고 이후 증가하여 2015년에는 2.3934를 기록했다. 화학제품과 식료품 및 산동물은 비슷하게 움직여 점차 감소하다가 각각 2011년, 2012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다시 상승하였다. 나머지 4가지 품목분류인 음료 및 연초, 광물성 연료,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은 모든 연도에서 1 미만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필리핀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추이(최근 10년)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필리핀의 경우에도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1.6852를 기록했다.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의 경우 2007년 4.8560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가 감소하였다가 2013년부터 다시 3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1.5 이상을 기록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재료별 제조제품과 식료품 및 산동물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1 이상을 유지하였다.

표 3-13. 필리핀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2000년부터)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식료품 및 산동물	0.6932	1.1837	0.6620	0.5905	0.4690	0.6752	0.8216	1.1514
음료 및 연초	0.1226	0.0900	0.0924	0.1563	0.3337	0.6301	0.5917	0.7555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3406	0.4495	0.5158	0.6679	0.5698	0.5736	0.6090	0.7306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2723	1.3692	1.8040	1.6609	3.0165	1.8941	1.6653	2.3546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6249	4.9157	0.6734	0.4890	2.6654	7.2012	9.0235	5.2438
화학제품	1.0753	1.1222	1.0226	0.9173	0.9818	0.9161	0.8669	0.9081
재료별 제조제품	0.8767	1.0721	0.9669	1.0327	1.0898	1.2665	1.2527	1.3364
기계류 및 운수장비	1.1073	1.0213	1.0406	1.0499	0.9247	0.9443	0.9835	0.8772
기타 제조제품	0.3526	0.3930	0.3884	0.3987	0.4102	0.3950	0.2971	0.2876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7197	0.2685	0.4944	0.5017	0.7629	5.4333	3.5015	4.8560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식료품 및 산동물	1.1525	1.3767	1.5608	1.1854	1.2452	1.3111	1.3552	1.6896
음료 및 연초	0.3731	0.5415	0.8531	0.3114	0.3966	0.8507	0.3930	0.262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7004	0.5805	0.4692	0.7341	0.6334	0.7330	0.7512	0.8792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9735	2.6275	1.3256	1.7244	2.2195	2.2288	2.9810	2.267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7.8420	6.3796	3.3417	3.4875	1.4291	1.2934	1.7233	1.6852
화학제품	1.0105	1.1492	1.1331	1.0972	0.8131	0.6073	0.5191	0.5660
재료별 제조제품	1.4302	1.2589	1.5022	1.7069	1.4539	1.3975	0.9951	1.0399
기계류 및 운수장비	0.8331	0.8433	0.9609	0.7951	0.8007	0.8575	0.8624	0.9730
기타 제조제품	0.2861	0.3519	0.2118	0.2391	0.2996	0.3962	0.3528	0.6443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3.3676	1.0514	1.1929	1.1672	1.1587	3.6527	4.0326	4.3748

주 : SITC Rev.3 기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화학제품은 1이상을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1미만으로 떨어져 경쟁력이 낮아졌고, 나머지 3가지 품목분류인 기계류 및 운수장비,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음료 및 연초, 기타 제조제품은 지속적으로 1미만을 기록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수출경쟁력 분석결과

앞에서는 각 지표 값의 변화 추세를 통해 수출경쟁력의 추이를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각 지표 값을 확정하여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지표 값을 특정연도나 10년 평균값, 가중평균값 등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최근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지표 값으로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수출입액을 평균한 값으로 지표를 산출한다.

1. 국제시장점유율(IMS) 분석결과

전체 국산 상품의 VIP 경제권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0%에 가까운 약 9.43%를 차지하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품목분류별로 살펴보면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등 2가지 분류에서는 10%를 초과하며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10%에서 5% 사이의 점유율을 차지한 품목분류는 광물성 연료, 운활유 및 관련물질, 화학제품, 기타 제조제품,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으로 4가지 분류에서 다소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식료품 및 산동물, 음료 및 연초,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등 4가지 분류에서는 5% 미만의 다소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품목분류별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제조업 수출에 강한 한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상품 통산으로 14.72%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그리고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등 4가지 품목분류에서 모두 10%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10%에서 5% 사이의 점유율을 차지한 품목분류는 광물성 연료, 운활유 및 관련물질 1가지였고, 나머지 5가지 분류에서는 모두 5% 미만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체 상품에 대해서는 6.3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재료별 제조제품에서만 10%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기록해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10%에서 5% 사이의 점유율을 기록한 품목분류는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 연료, 운활유 및 관련물질, 화학제품, 기타 제조제품 등 4가지 분류가 해당된다. 나머지 4가지 분류에서는 모두 5% 미만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표 3-14. 해당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최근 3년 평균 IMS

(단위 : %)

항 목	VIP경제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전체 상품	9.43	14.72	6.36	7.55
식료품 및 산동물	0.96	1.42	0.71	0.85
음료 및 연초	0.66	1.06	0.32	1.17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4.76	4.39	5.36	2.96
광물성 연료, 운활유 및 관련물질	9.26	7.90	8.01	14.3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49	0.42	1.43	0.18
화학제품	8.64	13.27	5.74	6.49
재료별 제조제품	14.47	17.28	12.31	10.68
기계류 및 운수장비	10.12	19.71	4.25	5.69
기타 제조제품	9.31	15.00	5.90	3.86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6.32	2.57	0.09	50.60

주 : 1. SITC Rev.3 기준

2. 최근 3년 평균은 2012년~2014년 평균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필리핀에서는 전체 상품에 대해서는 7.5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광물성 연료, 운활유 및 관련물질, 재료별 제조제품,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이 10%를 초

과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화학제품과 기계류 및 운수장비에서 5%~10% 사이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나머지 5가지 분류는 5%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시장점유율(IMS)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경제규모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판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표를 분석하는데만 그친다. 무역특화지수(TSI)와 시장비교우위(MCA) 지수에서는 최근 3년 평균 지표 분석에 더하여 그 결과치에 대한 평가를 더한다.



2. 무역특화지수(TSI) 분석결과

최근 3년간 해당 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 수입액으로 TSI 값을 평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VIP 경제권에서 전체 상품으로 보았을 때 TSI 값은 0.3으로 한국은 VIP 경제권에서 다소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경쟁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해당 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최근 3년 평균 TSI

항 목	VIP경제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전체 상품	0.3000	0.4807	-0.0530	0.4505
식료품 및 산동물	-0.5891	-0.6003	-0.4930	-0.6368
음료 및 연초	0.0997	0.9563	0.5718	-0.7436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4680	-0.1440	-0.5705	-0.6214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1564	0.0696	-0.3780	0.6805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9424	-0.8441	-0.9815	-0.2234
화학제품	0.7475	0.8633	0.5332	0.7880
재료별 제조제품	0.6165	0.6716	0.5139	0.6422
기계류 및 운수장비	0.6481	0.7230	0.5602	0.4986
기타 제조제품	-0.2905	-0.3686	-0.2337	0.1895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9303	0.9888	0.4833	0.9264

주 : 1. SITC Rev.3 기준

2. 최근 3년 평균은 2013년~2015년 평균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품목별로 살펴보면, 10가지 품목분류 중 거래금액 자체가 매우 저조하지만 일단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에서 가장 높은 수출특화를 기록했다. 이는 교역액

이 미미하지만 수입액 보다는 수출액이 조금 더 많은 결과이다. 다음으로 화학 제품 0.7475, 기계류 및 운수장비 0.6481, 재료별 제조제품 0.6165을 기록하였다. 3가지 품목분류에서 0.5 이상을 기록하며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강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약 0.1%의 비중으로 거래금액이 매우 적은 음료 및 연초 에서는 거의 비교우위 중립상태를 보였다.

표 3-16. 해당 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TSI 경쟁력 평가

항 목	VIP경제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전체 상품	다소우위	다소우위	중립	다소우위
식료품 및 산동물	강한열위	강한열위	다소열위	강한열위
음료 및 연초	중립	강한우위	강한우위	강한열위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다소열위	다소열위	강한열위	강한열위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다소열위	중립	다소열위	강한우위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강한열위	강한열위	강한열위	다소열위
화학제품	강한우위	강한우위	강한우위	강한우위
재료별 제조제품	강한우위	강한우위	강한우위	강한우위
기계류 및 운수장비	강한우위	강한우위	강한우위	다소우위
기타 제조제품	다소열위	다소열위	다소열위	다소우위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강한우위	강한우위	다소우위	강한우위

주 : 강한우위($0.5 \leq TSI \leq 1$), 다소우위($0.1 \leq TSI < 0.5$), 중립($-0.1 < TSI < 0.1$), 다소열위($-0.5 < TSI \leq -0.1$), 강한열위($-1 \leq TSI \leq -0.5$)

나머지 품목분류, 식료품 및 산동물,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기타 제조제품 등 5가지 품목분류에서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는 TSI 값

이 -0.9424으로 수입특화가 매우 강하고, 식료품 및 산동물도 -0.5891으로 수입특화가 강한 비교열위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4680,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0.1564, 기타 제조제품 -0.2905로 다소 비교열위에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개별국가로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장비,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 4가지 분류에서는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산동물,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등 3가지 분류에서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및 연초,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기타 제조제품 등 3가지 분류에서는 국별로 비교우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3.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분석결과

최근 3년간 대세계 수출액과 해당 경제권에 대한 수출액으로 MCA 지수를 평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VIP 경제권에서 재료별 제조제품이 1.7184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별 제조제품을 포함하여 경쟁력이 높음 구간에 해당하는 품목분류는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등 3가지 분류가 포함된다. 경쟁력이 다소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품목분류로는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식료품 및 산동물,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 3가지 분류가 포함되었다. 나머지 음료 4가지 품목분류는 경쟁력이 다소 낮은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해당 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최근 3년 평균 MCA

항 목	VIP경제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식료품 및 산동물	1.1526	1.0093	1.2259	1.4452
음료 및 연초	0.8581	1.2952	0.1897	0.4718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5549	1.1717	3.1200	0.781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5466	0.2993	3.5432	2.547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4397	1.3426	1.5366	1.5840
화학제품	0.8850	0.9395	1.0435	0.5623
재료별 제조제품	1.7184	1.7399	2.1795	1.1384
기계류 및 운수장비	0.8169	0.9860	0.3573	0.8959
기타 제조제품	0.6406	0.7255	0.6073	0.455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0315	0.3349	0.0524	3.9700

주 : 1. SITC Rev.3 기준

2. 최근 3년 평균은 2013년~2015년 평균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의 수치로 저자가 직접 계산

TSI 지표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보였던 화학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등의 품목분류가 MCA 지표에서는 다소 낮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 VIP 경제권 시장에 대해 한국이 수출특화에 가깝지만, 즉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훨씬 크지만, 모든 상품의 대세계 수출액에서 해당 상품의 대세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모든 상품의 대VIP경제권 수출액에서 해당 상품의 대VIP경제권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VIP 경제권에서 해당 상품의 무역수지의 흑자폭은 크지만, 해당 상품의 수출성과가 대세계(평균)에서 보다 높지는 않다는 말이다.³⁴⁾

표 3-18. 해당 시장에서 품목별 한국의 MCA 경쟁력 평가

항 목	VIP경제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식료품 및 산동물	다소높음	다소높음	다소높음	다소높음
음료 및 연초	다소낮음	다소높음	낮음	낮음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높음	다소높음	매우높음	다소낮음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높음	낮음	매우높음	높음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다소높음	다소높음	높음	높음
화학제품	다소낮음	다소낮음	다소높음	다소낮음
재료별 제조제품	높음	다소높음	높음	다소높음
기계류 및 운수장비	다소낮음	다소낮음	낮음	다소낮음
기타 제조제품	다소낮음	다소낮음	다소낮음	낮음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다소높음	낮음	낮음	매우높음

주 : 매우높음($3.0 \leq MCA$), 높음($1.5 \leq MCA < 3.0$), 다소높음($1.0 \leq MCA < 1.5$), 다소낮음($0.5 \leq MCA < 1.0$), 낮음($0.0 \leq TSI < 0.5$)

34)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에서 해당 품목분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VIP경제권에서 보다 더 크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2015년 기준 ‘기계류 및 운수장비’의 경우 대세계 구성비율이 58.96%인데 반해 대인도네시아 구성비율은 20.19%에 불과하다. (부록 17,19,21,29 참조)

개별 국가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료별 제조제품, 식료품 및 산동물,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등 3가지 품목분류에서는 공통적으로 그 경쟁력이 높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등 2가지 품목분류에서는 경쟁력이 모두 낮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가지 품목분류인 음료 및 연초,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화학제품,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에서는 국가별로 그 경쟁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제4장 요약 및 결론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국가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WTO 다자간 무역협상과 FTA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무역자유화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가 계속 되면서 세계 무역 또한 부진할 가능성을 보였고, 글로벌 원자재 교역량의 지표인 BDI³⁵⁾는 이미 사상 최저점을 찍은 상태다. 특히, 2016년 올해 들어 8월까지 세계무역액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 또한 그 수출액은 전년보다 감소폭이 커지면서 작년보다 2계단 낮은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어 세계무역이 더욱 둔화되고,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³⁶⁾ 이처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BRICs(브릭스) 경제권의 뒤를 이어 세계의 이목이 여러 Post BRICs(포스트 브릭스) 경제권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언급되어온 여러 Post BRICs(포스트 브릭스) 경제권들 중 VIP 경제권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VIP 경제권의 각종 경제현황 및 한국과의 교역현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VIP 경제권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시장점유율(IMS),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MCA) 지수 등의 지표를 추정하여 분석하였고, 특히 SITC(표준국제무역분류)의 대분류에 따라 10가지 품목분류 중에서 어떤 품목류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지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 VIP 경제권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특히 대 VIP 경제권 수출액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 대비 2000년에는 4.96%에서 2015

35) BDI(Baltic Dry Index)는 발틱해운거래소가 산출하는 건화물시황 운임지수로 1999년 말부터 발표하고 있다. 철강·곡물 등 포장 없이 내용물을 실어 옮기는 벌크선 운임지수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출처 : 매경시사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

36) 연합뉴스, 이울 기자, “올들어 세계무역액 6년 만에 최저…韓 수출 세계 8위로 하락”, 2016.11.14.

년에는 8.35% 까지 증가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에게는 놓칠 수 없는 수출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국제시장점유율(IMS)로 알아본 결과, 한국은 VIP 경제권에서 재료별 제조제품과 기계류 및 운수장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그 추이도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등 4가지 품목분류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재료별 제조제품에서, 필리핀에서는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재료별 제조제품,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 4가지 품목분류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재료별 제조제품의 경우 VIP 경제권에서 뿐만 아니라 3개국 모두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여 한국의 대 VIP 경제권 수출품목 중 제조업에 소요되는 중간재 수출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VIP 경제권에서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 4가지 품목분류에서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음료 및 연초,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 5가지 품목분류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음료 및 연초,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등 4가지 품목분류에서, 필리핀에서는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등 5가지 품목분류에서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화학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류 및 운수장비 등 3가지 품목분류는 그 비교우위의 변화 추이에서도 계속 수출특화가 강한 모습을 보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시장비교우위(MCA)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VIP 경제권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품목분류는 없었고,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재료별 제조제품 등 3가지 품목분류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경쟁력이 높게 나타난 품목분류는 없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광물성 연료, 윤

활유 및 관련물질 등 2가지 품목분류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재료별 제조제품 등 2가지 품목분류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에서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고,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등 2가지 품목분류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추이에 있어서 3개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품목분류는 없었으나, VIP 경제권 전체로 보았을 때 국제시장점유율(IMS)의 결과와 유사하게 재료별 제조제품에서는 경쟁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먼저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VIP 경제권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일부 품목분류에서는 시장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TSI)에서 살펴봤듯이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품목분류들도 있으나 시장비교우위(MCA) 지수에서는 경쟁력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대 VIP 경제권에 대해 수출특화를 가지지만, VIP 경제권에 대한 수출성고가 대 세계에 대한 수출성과 보다 크게 좋은 성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VIP 경제권의 경제성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입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대 VIP 경제권 수출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VIP 경제권에 대해 안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분류군의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분류군에 있어서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품목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BRICs(브릭스) 경제권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Post BRICs(포스트 브릭스) 경제권으로 VIP 경제권이 새로운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2007년 VIP 경제권 3개국이 포함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체결한 FTA³⁷⁾를 시행한 이후 동남아시

37) 한-아세안FTA상품무역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상품무역협정.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 협정이다. 20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모든 문안 확정에 최종합의 하였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었

아 국가들과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한-아세안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VIP 경제권을 전방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화교가 VIP 경제권 시장을 장악하고 일본 대기업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해당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을 일부 포함시키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까지 타결되었다. VIP 경제권을 포함하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 등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권도 빼앗긴 한국이 과연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으로 진출했던 한국기업이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탈출이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보다 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VIP 경제권으로 진출경로를 수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을 강화하고 무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한류가 그동안에는 수출성과에 큰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즉, 생산기지일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써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경제권은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성, 안정적인 출산율 등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국가들의 지도층과 국민들도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랄 것이다. 이에 과거 빠른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VIP 경제권 구성원들에게는 필히 따라가야 하는 선구자의 길로 생각될 수 있다. 이에 VIP 경제권의 산업화를 위해 한국이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동시에 해당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다.

다. 총 품목 중 99.2%인 1만294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하였다. (출처 : 매경시사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

본 논문의 한계는, 먼저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가격 및 비가격 지표 등 다양한 측정수단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정도의 지표만으로 그 경쟁력을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VIP 경제권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품목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대분류인 10개 품목분류에 한하여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출상품을 종류별로 너무 크게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어떤 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은 어떤 것들인지 모호해지거나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SITC의 중분류, 소분류까지 통계를 추출하여 산업별, 기술수준별로 분류하거나, HS 분류를 활용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VIP 경제권 시장에서 오직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지표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의 특성상 상대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교대상 없이 절대적 수치인 지표의 기준만으로 측정한 것은 경쟁력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측정하여 비교 판단하는 것이 주제를 전달하는데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희채,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Global Strategy Report」, 16-005, KOTRA, 2016.6
- 구중환, 「한국 산업용밸브의 수출경쟁력과 수출 결정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2
- 권기수, 박미숙,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전략지역심층 연구」, 1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2.30
- 김남두, 원용걸, 전재욱, 정훈,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정책연구」, 97-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12.30
- 김영환,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2
- 김종상, 박대희, “새로 뜨는 동남아 VIP 시장 중요성과 진출방안”, 「Global Market Report」, 12-075, KOTRA, 2012.12.31
- 김희철,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칠레 FTA 체결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5호,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10
- 남시경, “한·중 철강 교역구조 및 철강제품별 경쟁력 분석”, 「POSRI 경영연구」, 제7권 제1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
- 모수원, 정홍영, 이광배,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부산항의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1권 제3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5.9.
- 신경련, 안유석, “2016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015.11
- 심재희, “기술수준별 한국 수출제품의 대 민트(MINTs) 국제경쟁력 분석”, 「통

- 상정보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9
- 안중기, “아세안(ASEAN)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VIP 리포트」, 15-15 [통권 612호], 현대경제연구원, 2015.4.20
- _____, 백흥기, “아세안 신흥국 수출시장에 주목하자: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과 시사점”, 「VIP 리포트」, 13-26 [통권 536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7.30
- 유선아, 안유석, “2016 베트남 진출전략”, KOTRA 하노이 무역관, 2015.11
- 유일선,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9.6
- _____, 선선문, “한국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무역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2.3
- 이순철, “중국·인도·한국간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중국지역연구」, 제2권 제2호, 중국지역학회, 2015.12
- 이연주, 현성룡, 안유석, “2016 필리핀 진출전략”, KOTRA 마닐라 무역관, 2015.10
- 이효연, 「한·중 FTA와 산업별 비교우위 분석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3.2
- 임혜준,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정책 시사점”, 「무역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1.3
- 전종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한 한국과 동남아시아 3국의 무역경쟁력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2
- 정민, 천용찬, 이해정, “아세안(ASEAN) 시장이 떠 오른다! - 한·ASEAN 교류 현황과 기회요인”, 「현안과 과제」, 15-05, 현대경제연구원, 2015.2.04.
- 조인택,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2

외국문헌

- Amador, J., Cabral. S. and J. R. Maria, “A Simple Cross-Country Index of Trade Specialization”, *Open economies review*, 22(3), 2011
- Ferrarini, B. and P. Scaramozzino, “Indicators and Patterns of Special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NCCR Trade Regulation*, Working Paper No.2011/10, 2010
- Hillman, A. L., “Observ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arative Advantage as indicated by Pre-Trade Relative Pric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16(2), 1980
- Lapadre, P. L., “Measuring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 Res.*, 7(1), 2001
- Redding, S., “Specialization Dynam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8, 2002.
- WEF, 201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2016

웹사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www.oecd.org/>
국제부흥은행(IBRD,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국제연합(UN), <http://www.un.org/>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http://www.unctad.org/>
국제통화기금(IMF), <http://www.imf.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외교부, <http://www.mofat.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http://library.kmou.ac.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KOSIS(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UN, 세계무역통계(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data/>

부 록

부록 1.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개정 3판(Rev.3)

<p>0 식료품 및 산동물</p> <p>00 중분류 03의 동물을 제외한 산동물</p> <p>01 육류 및 육류 조제품</p> <p>02 유제품과 조류 알</p> <p>03 물고기(해서동물 제외), 갑각류, 연체 동물 및 수생 무척추동물과 그 조제품</p> <p>04 곡식 및 곡식가공품</p> <p>05 야채와 과일</p> <p>06 설탕, 설탕 조제품 및 꿀</p> <p>07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이들의 제조품</p> <p>08 동물 사료 (압착되지 않은 곡물 제외)</p> <p>09 기타 식용식품 및 조제품</p> <p>1 음료 및 연초</p> <p>11 음료</p> <p>12 담배 및 담배 제조품</p> <p>2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p> <p>21 원피, 가죽 및 모피</p> <p>22 오일 씨앗 및 유성 과일</p> <p>23 (합성 및 재이용 포함) 생고무</p> <p>24 코르크와 나무</p> <p>25 펄프 및 폐지</p> <p>26 섬유 (울톱 및 기타 콤팩트 울 제외) 및 (실 또는 직물로 제조되지 않은) 폐기물</p> <p>27 미가공비료(56항의것 제외) 및 미가공 광물(석탄, 석유, 보석 제외)</p>	<p>28 금속성 광석과 금속 스크랩</p> <p>2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p> <p>3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p> <p>32 석탄, 코크스 및 연탄</p> <p>33 석유, 석유 제품 및 관련 물질</p> <p>34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p> <p>35 전류</p> <p>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p> <p>41 동물성 유지</p> <p>42 불휘발성 식물성기름, 조유, 정제되거나 분획된 것</p> <p>4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식물성 유지, 가공된, 동식물성 왁스: 비식용 동식물성 유지의 혼합물과 조제품</p> <p>5 화학 제품</p> <p>51 유기 화학물</p> <p>52 무기 화학물</p> <p>53 염색, 유연제 및 착색제</p> <p>54 약용 및 의약품</p> <p>55 정유와 수지성 물질 및 향수 재료 ; 화장실, 연마 및 세안제</p> <p>56 비료 (272항의 것 제외)</p> <p>57 원료 형태의 플라스틱</p> <p>58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p> <p>59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 재료 및 제품</p>
---	--

자료 : UN, <http://unstats.un.org/>

부록 1. 계속

<p>6 재료별 제조제품</p> <p>61 가죽,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죽 제조품 및 손질 모피</p> <p>62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 제조품</p> <p>63 코르크 및 목재 제조품 (가구 제외)</p> <p>64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p> <p>6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섬유 원사, 직물, 방직용 섬유 및 관련 제품</p> <p>66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p> <p>67 철과 강철</p> <p>68 비철 금속</p> <p>6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 제조품</p>	<p>8 기타 제조제품</p> <p>81 조립식 건물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위생, 배관, 난방 및 조명 설비 및 부착물</p> <p>82 가구 및 이들 부품 :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물, 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p> <p>83 여행 용품,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p> <p>84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p> <p>85 신발류</p> <p>8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제어 장비 및 장치</p> <p>8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 장치, 장비, 소모품 및 광학 제품, 시계</p> <p>8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조품</p>
<p>7 기계류 및 운수장비</p> <p>71 원동기기 및 설비</p> <p>72 특수산업용 기계</p> <p>73 금속공작용 기계</p> <p>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산업용 일반 기계 및 장비</p> <p>75 사무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p> <p>76 통신 및 사운드 녹음 및 재생 장치와 장비</p> <p>7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 기계 장치 및 기기, 그것의 전기 부품 (가전장비의 비전기식 대조물 포함)</p> <p>78 - 도로 차량 (공기 쿠션 차량 포함)</p> <p>79 - 기타 운송 장비</p>	<p>9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p> <p>91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우편 패키지</p> <p>93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특별 거래물 및 상품</p> <p>96 법정화폐가 아닌 동전 (금화 제외)</p> <p>97 비화폐성 금 (금광 및 그 정광 제외)</p> <p>I - 금, 통화</p> <p>II - 금화, 통화 동전</p>

자료 : UN, <http://unstats.un.org/>

부록 2. 해당 시장에 대한 한국의 전체 상품 무역액(2000년부터)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세계전체	VIP경제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0년	수입액	160,479	7,424	322	5,287	1,815
	수출액	172,267	8,550	1,686	3,504	3,360
2001년	수입액	141,097	6,678	386	4,474	1,819
	수출액	150,431	7,547	1,732	3,280	2,535
2002년	수입액	152,124	7,061	470	4,723	1,867
	수출액	162,466	8,335	2,240	3,145	2,950
2003년	수입액	178,826	7,687	511	5,212	1,964
	수출액	193,817	8,914	2,561	3,378	2,975
2004년	수입액	224,461	9,161	673	6,368	2,120
	수출액	253,845	10,313	3,256	3,678	3,379
2005년	수입액	261,236	11,195	694	8,184	2,316
	수출액	284,418	11,697	3,432	5,046	3,220
2006년	수입액	309,379	11,960	925	8,849	2,187
	수출액	325,457	12,730	3,927	4,872	3,931
2007년	수입액	356,842	12,944	1,392	9,114	2,438
	수출액	371,477	15,951	5,760	5,771	4,420
2008년	수입액	435,271	16,457	2,037	11,320	3,099
	수출액	422,003	20,755	7,805	7,934	5,016
2009년	수입액	323,082	14,286	2,370	9,264	2,652
	수출액	363,531	17,717	7,149	6,000	4,567
2010년	수입액	425,208	20,805	3,331	13,986	3,488
	수출액	466,381	24,387	9,652	8,897	5,838
2011년	수입액	524,405	25,872	5,084	17,216	3,571
	수출액	555,209	34,368	13,465	13,564	7,339
2012년	수입액	519,576	24,679	5,719	15,676	3,284
	수출액	547,854	38,112	15,946	13,955	8,211
2013년	수입액	515,573	24,071	7,175	13,190	3,706
	수출액	559,619	41,439	21,088	11,568	8,783
2014년	수입액	525,557	23,593	7,989	12,271	3,333
	수출액	573,075	43,797	22,333	11,417	10,047
2015년	수입액	436,536	21,907	9,803	8,853	3,251
	수출액	526,897	43,981	27,773	7,875	8,332

주 :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3. 해당 시장에 대한 전세계 대비 한국의 전체 상품 무역 비중(2000년부터)

(단위 : %)

연도	구분	세계전체	VIP경제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0년	수입액	100.00	4.63	0.20	3.29	1.13
	수출액	100.00	4.96	0.98	2.03	1.95
2001년	수입액	100.00	4.73	0.27	3.17	1.29
	수출액	100.00	5.02	1.15	2.18	1.69
2002년	수입액	100.00	4.64	0.31	3.10	1.23
	수출액	100.00	5.13	1.38	1.94	1.82
2003년	수입액	100.00	4.30	0.29	2.91	1.10
	수출액	100.00	4.60	1.32	1.74	1.53
2004년	수입액	100.00	4.08	0.30	2.84	0.94
	수출액	100.00	4.06	1.28	1.45	1.33
2005년	수입액	100.00	4.29	0.27	3.13	0.89
	수출액	100.00	4.11	1.21	1.77	1.13
2006년	수입액	100.00	3.87	0.30	2.86	0.71
	수출액	100.00	3.91	1.21	1.50	1.21
2007년	수입액	100.00	3.63	0.39	2.55	0.68
	수출액	100.00	4.29	1.55	1.55	1.19
2008년	수입액	100.00	3.78	0.47	2.60	0.71
	수출액	100.00	4.92	1.85	1.88	1.19
2009년	수입액	100.00	4.42	0.73	2.87	0.82
	수출액	100.00	4.87	1.97	1.65	1.26
2010년	수입액	100.00	4.89	0.78	3.29	0.82
	수출액	100.00	5.23	2.07	1.91	1.25
2011년	수입액	100.00	4.93	0.97	3.28	0.68
	수출액	100.00	6.19	2.43	2.44	1.32
2012년	수입액	100.00	4.75	1.10	3.02	0.63
	수출액	100.00	6.96	2.91	2.55	1.50
2013년	수입액	100.00	4.67	1.39	2.56	0.72
	수출액	100.00	7.40	3.77	2.07	1.57
2014년	수입액	100.00	4.49	1.52	2.33	0.63
	수출액	100.00	7.64	3.90	1.99	1.75
2015년	수입액	100.00	5.02	2.25	2.03	0.74
	수출액	100.00	8.35	5.27	1.49	1.58

주 :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4. 베트남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십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56,365	162,179	197,456	252,558	319,688	367,611	448,911	627,647
식료품 및 산동물	6,240	8,197	9,302	12,557	14,886	19,480	22,881	32,447
음료 및 연초	1,024	1,084	1,493	1,520	1,619	1,751	1,442	1,83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5,885	6,901	8,161	9,964	14,480	16,172	20,742	26,56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21,128	19,703	21,655	27,143	39,818	53,657	66,989	87,44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862	831	1,295	1,517	2,226	1,876	2,525	4,729
화학제품	23,923	24,857	29,028	35,919	46,730	52,902	62,866	83,687
재료별 제조제품	33,889	37,272	53,586	66,339	88,203	101,193	121,022	170,019
기계류 및 운수장비	46,927	48,262	56,623	79,212	86,810	92,178	107,530	178,298
기타 제조제품	11,331	13,168	13,959	15,523	17,847	18,837	22,330	27,183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5,156	1,903	2,354	2,864	7,070	9,566	20,584	15,450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807,138	699,488	848,386	1,067,499	1,137,804	1,320,325	1,478,390	n.a
식료품 및 산동물	44,470	45,791	61,751	73,198	76,161	90,246	105,927	n.a
음료 및 연초	2,694	3,416	2,929	3,185	3,211	3,777	3,832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8,195	32,244	44,786	63,258	65,560	70,029	81,346	n.a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23,297	74,974	81,404	125,310	114,521	101,188	103,557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6,491	4,917	6,981	9,150	7,384	6,879	7,604	n.a
화학제품	102,848	102,152	124,750	155,283	161,400	181,785	196,905	n.a
재료별 제조제품	200,289	177,672	223,890	255,190	261,429	299,775	345,679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224,731	219,281	247,648	311,174	389,140	494,155	550,139	n.a
기타 제조제품	32,918	32,722	41,725	47,545	54,464	64,747	74,793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31,206	6,318	12,521	24,204	4,533	7,746	8,609	n.a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베트남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5. 베트남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3.99	5.05	4.71	4.97	4.66	5.30	5.10	5.17
음료 및 연초	0.65	0.67	0.76	0.60	0.51	0.48	0.32	0.2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76	4.26	4.13	3.95	4.53	4.40	4.62	4.23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3.51	12.15	10.97	10.75	12.46	14.60	14.92	13.9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55	0.51	0.66	0.60	0.70	0.51	0.56	0.75
화학제품	15.30	15.33	14.70	14.22	14.62	14.39	14.00	13.33
재료별 제조제품	21.67	22.98	27.14	26.27	27.59	27.53	26.96	27.09
기계류 및 운수장비	30.01	29.76	28.68	31.36	27.15	25.07	23.95	28.41
기타 제조제품	7.25	8.12	7.07	6.15	5.58	5.12	4.97	4.33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3.30	1.17	1.19	1.13	2.21	2.60	4.59	2.46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n.a
식료품 및 산동물	5.51	6.55	7.28	6.86	6.69	6.84	7.17	n.a
음료 및 연초	0.33	0.49	0.35	0.30	0.28	0.29	0.26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4.73	4.61	5.28	5.93	5.76	5.30	5.50	n.a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5.28	10.72	9.60	11.74	10.07	7.66	7.00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80	0.70	0.82	0.86	0.65	0.52	0.51	n.a
화학제품	12.74	14.60	14.70	14.55	14.19	13.77	13.32	n.a
재료별 제조제품	24.81	25.40	26.39	23.91	22.98	22.70	23.38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27.84	31.35	29.19	29.15	34.20	37.43	37.21	n.a
기타 제조제품	4.08	4.68	4.92	4.45	4.79	4.90	5.06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3.87	0.90	1.48	2.27	0.40	0.59	0.58	n.a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베트남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6. 인도네시아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십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335,148	309,621	312,888	325,507	465,245	577,009	610,655	744,734
식료품 및 산동물	27,822	24,973	28,524	31,211	37,863	40,117	47,094	68,837
음료 및 연초	1,804	2,347	2,104	1,682	1,948	2,075	2,323	3,305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3,038	31,785	26,683	25,956	35,066	33,974	36,126	44,794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60,712	55,231	65,585	76,644	117,975	175,119	190,277	219,94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476	399	529	511	707	728	858	909
화학제품	58,932	54,004	52,764	53,164	76,134	80,755	87,245	100,454
재료별 제조제품	50,412	42,504	42,427	41,585	62,035	78,131	77,021	96,120
기계류 및 운수장비	92,115	90,502	86,058	85,669	121,754	152,624	154,113	190,854
기타 제조제품	9,767	7,787	8,144	8,991	11,763	13,442	15,570	19,432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70	89	71	94	1	45	28	86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292,441	968,292	1,356,633	1,774,356	1,916,909	1,866,286	1,781,793	n.a
식료품 및 산동물	79,376	72,705	96,754	143,353	133,423	138,717	145,874	n.a
음료 및 연초	4,784	4,238	5,350	6,568	8,481	8,216	7,892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74,328	49,863	72,883	99,939	90,297	92,312	91,767	n.a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306,518	190,666	275,058	408,210	427,329	455,101	439,287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476	1,335	1,804	2,163	1,841	2,432	1,693	n.a
화학제품	159,370	117,752	166,783	222,078	236,391	235,563	237,546	n.a
재료별 제조제품	201,624	141,276	204,611	258,647	299,082	285,938	269,814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428,227	357,875	469,349	560,609	635,148	564,607	512,180	n.a
기타 제조제품	36,374	32,333	46,473	54,119	62,551	68,939	65,712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363	248	17,567	18,669	22,367	14,462	10,028	n.a

주 : SITC Rev.3 기준, Repoter는 인도네시아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7. 인도네시아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8.30	8.07	9.12	9.59	8.14	6.95	7.71	9.24
음료 및 연초	0.54	0.76	0.67	0.52	0.42	0.36	0.38	0.44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9.86	10.27	8.53	7.97	7.54	5.89	5.92	6.01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18.11	17.84	20.96	23.55	25.36	30.35	31.16	29.5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14	0.13	0.17	0.16	0.15	0.13	0.14	0.12
화학제품	17.58	17.44	16.86	16.33	16.36	14.00	14.29	13.49
재료별 제조제품	15.04	13.73	13.56	12.78	13.33	13.54	12.61	12.91
기계류 및 운수장비	27.48	29.23	27.50	26.32	26.17	26.45	25.24	25.63
기타 제조제품	2.91	2.52	2.60	2.76	2.53	2.33	2.55	2.6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2	0.03	0.02	0.03	0.00	0.01	0.00	0.01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n.a
식료품 및 산동물	6.14	7.51	7.13	8.08	6.96	7.43	8.19	n.a
음료 및 연초	0.37	0.44	0.39	0.37	0.44	0.44	0.44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5.75	5.15	5.37	5.63	4.71	4.95	5.15	n.a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23.72	19.69	20.28	23.01	22.29	24.39	24.65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11	0.14	0.13	0.12	0.10	0.13	0.09	n.a
화학제품	12.33	12.16	12.29	12.52	12.33	12.62	13.33	n.a
재료별 제조제품	15.60	14.59	15.08	14.58	15.60	15.32	15.14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33.13	36.96	34.60	31.60	33.13	30.25	28.75	n.a
기타 제조제품	2.81	3.34	3.43	3.05	3.26	3.69	3.69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3	0.03	1.29	1.05	1.17	0.77	0.56	n.a

주 : SITC Rev.3 기준, Repoter는 인도네시아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8. 필리핀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십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370,074	349,434	410,920	425,757	461,021	494,874	540,780	579,957
식료품 및 산동물	22,533	23,141	24,719	23,170	26,078	29,461	31,706	37,131
음료 및 연초	1,925	2,096	2,469	2,753	2,559	2,618	2,566	2,460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0,892	10,371	9,778	9,992	11,709	11,651	11,134	13,216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40,951	35,858	34,180	39,902	49,858	65,367	82,997	98,831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741	514	565	676	1,119	1,532	1,635	1,787
화학제품	29,770	28,069	28,931	32,132	34,989	36,104	39,749	42,292
재료별 제조제품	39,469	37,393	37,653	38,834	40,485	43,975	46,388	47,295
기계류 및 운수장비	209,210	199,425	259,697	260,179	274,826	286,089	303,650	317,061
기타 제조제품	13,976	12,174	12,138	17,138	18,254	16,891	18,746	17,629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606	393	790	981	1,144	1,186	2,209	2,253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604,197	458,777	584,678	636,927	653,498	657,054	677,189	701,535
식료품 및 산동물	58,662	48,069	59,530	56,421	60,770	60,888	72,139	71,589
음료 및 연초	2,794	2,505	1,914	2,297	2,367	2,923	2,973	3,087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2,368	15,254	20,386	16,379	19,098	19,486	9,258	10,15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28,036	76,542	99,051	128,104	140,935	135,375	135,896	82,92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2,510	1,618	1,954	5,707	4,050	2,849	6,237	6,415
화학제품	51,666	44,827	55,849	67,614	67,116	65,067	74,534	71,129
재료별 제조제품	48,939	36,395	46,833	58,004	56,635	60,694	67,614	75,196
기계류 및 운수장비	278,969	215,408	275,187	180,247	275,527	282,136	275,975	343,556
기타 제조제품	17,309	16,035	19,289	21,785	24,300	25,446	29,097	35,227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2,944	2,124	4,684	100,369	2,701	2,190	3,465	2,265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필리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9. 필리핀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6.09	6.62	6.02	5.44	5.66	5.95	5.86	6.40
음료 및 연초	0.52	0.60	0.60	0.65	0.56	0.53	0.47	0.42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94	2.97	2.38	2.35	2.54	2.35	2.06	2.28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1.07	10.26	8.32	9.37	10.81	13.21	15.35	17.0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20	0.15	0.14	0.16	0.24	0.31	0.30	0.31
화학제품	8.04	8.03	7.04	7.55	7.59	7.30	7.35	7.29
재료별 제조제품	10.67	10.70	9.16	9.12	8.78	8.89	8.58	8.15
기계류 및 운수장비	56.53	57.07	63.20	61.11	59.61	57.81	56.15	54.67
기타 제조제품	3.78	3.48	2.95	4.03	3.96	3.41	3.47	3.04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16	0.11	0.19	0.23	0.25	0.24	0.41	0.39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9.71	10.48	10.18	8.86	9.30	9.27	10.65	10.20
음료 및 연초	0.46	0.55	0.33	0.36	0.36	0.44	0.44	0.44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05	3.32	3.49	2.57	2.92	2.97	1.37	1.45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21.19	16.68	16.94	20.11	21.57	20.60	20.07	11.8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42	0.35	0.33	0.90	0.62	0.43	0.92	0.91
화학제품	8.55	9.77	9.55	10.62	10.27	9.90	11.01	10.14
재료별 제조제품	8.10	7.93	8.01	9.11	8.67	9.24	9.98	10.72
기계류 및 운수장비	46.17	46.95	47.07	28.30	42.16	42.94	40.75	48.97
기타 제조제품	2.86	3.50	3.30	3.42	3.72	3.87	4.30	5.02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49	0.46	0.80	15.76	0.41	0.33	0.51	0.32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필리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0. 베트남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75,355	188,683	227,960	262,544	335,937	359,407	390,843	534,039
식료품 및 산동물	1,407	2,264	1,071	908	792	1,456	1,639	2,901
음료 및 연초	n.a	8	44	35	31	54	61	7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4,856	5,720	4,881	5,729	6,263	6,071	7,347	10,681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3,806	10,104	11,891	8,662	33,378	44,541	52,502	77,80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n.a	67	62	123	178	172	202	357
화학제품	28,733	27,192	27,599	31,034	47,773	49,357	58,137	74,537
재료별 제조제품	65,909	64,148	90,049	109,046	126,645	137,936	155,898	197,620
기계류 및 운수장비	42,999	53,061	71,841	83,706	91,619	96,243	90,512	142,363
기타 제조제품	24,110	25,160	19,546	22,318	28,145	22,476	23,402	26,526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3,537	958	974	983	1,113	1,100	1,144	1,183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725,518	697,636	975,763	1,317,593	1,553,536	2,067,790	2,172,847	n.a
식료품 및 산동물	4,464	6,588	7,608	8,749	12,005	13,088	13,654	n.a
음료 및 연초	77	127	132	200	245	372	533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4,894	14,515	20,168	32,938	33,405	31,610	30,221	n.a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51,650	72,877	82,167	119,466	105,804	79,670	66,713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354	152	261	242	231	303	387	n.a
화학제품	100,628	108,118	142,252	174,341	195,057	243,604	278,055	n.a
재료별 제조제품	243,942	249,584	363,727	446,945	448,620	529,285	589,606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177,483	213,779	311,728	475,432	689,425	1,066,917	1,069,006	n.a
기타 제조제품	30,984	31,108	42,476	57,131	67,186	101,448	122,352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043	787	5,244	2,149	1,558	1,493	2,317	n.a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베트남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1. 베트남의 대한국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80	1.20	0.47	0.35	0.24	0.41	0.42	0.54
음료 및 연초	n.a	0.00	0.02	0.01	0.01	0.02	0.02	0.0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77	3.03	2.14	2.18	1.86	1.69	1.88	2.0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2.17	5.36	5.22	3.30	9.94	12.39	13.43	14.57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n.a	0.04	0.03	0.05	0.05	0.05	0.05	0.07
화학제품	16.39	14.41	12.11	11.82	14.22	13.73	14.87	13.96
재료별 제조제품	37.59	34.00	39.50	41.53	37.70	38.38	39.89	37.00
기계류 및 운수장비	24.52	28.12	31.51	31.88	27.27	26.78	23.16	26.66
기타 제조제품	13.75	13.33	8.57	8.50	8.38	6.25	5.99	4.97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2.02	0.51	0.43	0.37	0.33	0.31	0.29	0.22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n.a
식료품 및 산동물	0.62	0.94	0.78	0.66	0.77	0.63	0.63	n.a
음료 및 연초	0.01	0.02	0.01	0.02	0.02	0.02	0.02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05	2.08	2.07	2.50	2.15	1.53	1.39	n.a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20.90	10.45	8.42	9.07	6.81	3.85	3.07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5	0.02	0.03	0.02	0.01	0.01	0.02	n.a
화학제품	13.87	15.50	14.58	13.23	12.56	11.78	12.80	n.a
재료별 제조제품	33.62	35.78	37.28	33.92	28.88	25.60	27.14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24.46	30.64	31.95	36.08	44.38	51.60	49.20	n.a
기타 제조제품	4.27	4.46	4.35	4.34	4.32	4.91	5.63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14	0.11	0.54	0.16	0.10	0.07	0.11	n.a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베트남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2. 인도네시아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208,257	220,932	164,676	152,788	194,258	286,909	287,585	319,669
식료품 및 산동물	2,404	2,088	2,523	2,249	3,179	3,863	5,280	4,796
음료 및 연초	4	13	14	29	26	50	61	276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8,526	8,017	6,679	6,217	8,960	8,794	8,543	9,635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27,839	38,139	21,986	2,668	6,844	118,741	117,777	120,52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77	84	102	88	90	69	101	143
화학제품	59,119	53,706	44,634	38,000	54,514	50,031	53,895	58,860
재료별 제조제품	68,217	60,013	49,751	46,637	59,400	59,252	56,585	70,716
기계류 및 운수장비	33,526	52,893	33,678	52,609	55,597	42,127	42,225	50,348
기타 제조제품	8,230	5,535	4,708	3,687	5,646	3,868	3,117	4,185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315	444	602	605	1	113	n.a	186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692,577	474,233	770,300	1,299,975	1,197,037	1,159,263	1,184,741	n.a
식료품 및 산동물	6,179	5,518	6,513	7,713	8,630	10,127	10,716	n.a
음료 및 연초	268	118	52	71	137	191	451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2,868	15,037	27,988	52,039	54,483	47,098	45,522	n.a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213,415	94,356	211,824	557,061	368,203	279,847	410,900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216	191	233	333	308	257	287	n.a
화학제품	97,118	74,524	90,729	116,347	131,369	143,544	132,190	n.a
재료별 제조제품	190,980	153,212	217,311	312,545	355,726	358,450	338,480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141,564	116,364	196,109	223,098	244,991	268,145	214,233	n.a
기타 제조제품	19,968	14,912	19,531	30,689	33,096	51,306	31,928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2	0	10	78	94	298	33	n.a

주 : SITC Rev.3 기준, Repoter는 인도네시아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3. 인도네시아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1.15	0.94	1.53	1.47	1.64	1.35	1.84	1.50
음료 및 연초	0.00	0.01	0.01	0.02	0.01	0.02	0.02	0.0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4.09	3.63	4.06	4.07	4.61	3.07	2.97	3.01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3.37	17.26	13.35	1.75	3.52	41.39	40.95	37.7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4	0.04	0.06	0.06	0.05	0.02	0.04	0.04
화학제품	28.39	24.31	27.10	24.87	28.06	17.44	18.74	18.41
재료별 제조제품	32.76	27.16	30.21	30.52	30.58	20.65	19.68	22.12
기계류 및 운수장비	16.10	23.94	20.45	34.43	28.62	14.68	14.68	15.75
기타 제조제품	3.95	2.51	2.86	2.41	2.91	1.35	1.08	1.3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15	0.20	0.37	0.40	0.00	0.04	n.a	0.06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n.a
식료품 및 산동물	0.89	1.16	0.85	0.59	0.72	0.87	0.90	n.a
음료 및 연초	0.04	0.02	0.01	0.01	0.01	0.02	0.04	n.a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30	3.17	3.63	4.00	4.55	4.06	3.84	n.a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30.81	19.90	27.50	42.85	30.76	24.14	34.68	n.a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3	0.04	0.03	0.03	0.03	0.02	0.02	n.a
화학제품	14.02	15.71	11.78	8.95	10.97	12.38	11.16	n.a
재료별 제조제품	27.58	32.31	28.21	24.04	29.72	30.92	28.57	n.a
기계류 및 운수장비	20.44	24.54	25.46	17.16	20.47	23.13	18.08	n.a
기타 제조제품	2.88	3.14	2.54	2.36	2.76	4.43	2.69	n.a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0	0.00	0.00	0.01	0.01	0.03	0.00	n.a

주 : SITC Rev.3 기준, Repoter는 인도네시아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4. 필리핀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289,168	219,909	311,443	269,509	285,276	238,608	333,234	340,391
식료품 및 산동물	2,420	2,405	1,657	1,421	962	1,258	1,077	1,699
음료 및 연초	223	1,075	90	243	58	85	339	30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976	1,028	964	1,167	1,069	759	1,864	2,788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12,504	10,656	17,588	17,552	34,990	27,318	31,848	47,816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99	186	45	49	79	138	353	225
화학제품	27,297	25,572	27,689	24,411	25,365	24,313	30,742	33,176
재료별 제조제품	46,351	48,889	45,593	43,971	43,044	48,259	55,900	53,701
기계류 및 운수장비	191,484	125,118	211,295	173,555	171,247	128,788	200,763	188,362
기타 제조제품	6,035	4,838	5,853	5,836	5,939	6,395	6,108	6,866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779	142	668	1,306	2,523	1,294	4,240	5,457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312,852	316,086	404,035	464,049	473,085	505,047	523,408	455,018
식료품 및 산동물	1,676	2,743	4,369	4,421	4,226	4,976	7,357	9,003
음료 및 연초	108	56	75	148	232	316	421	64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663	2,812	1,329	1,858	3,160	7,077	3,940	4,894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73,488	74,851	49,737	122,626	175,587	182,590	232,312	95,439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349	182	172	266	128	56	56	150
화학제품	38,805	35,995	46,122	69,971	47,921	44,098	42,195	39,373
재료별 제조제품	44,504	35,501	44,171	54,574	62,643	71,657	63,268	66,344
기계류 및 운수장비	138,695	153,080	244,698	136,760	161,078	172,212	141,339	216,787
기타 제조제품	7,060	5,081	5,001	6,112	9,827	10,456	10,129	12,83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5,504	5,785	8,359	67,314	8,282	11,609	22,391	9,554

주 : SITC Rev.3 기준, Repoter는 필리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5. 필리핀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84	1.09	0.53	0.53	0.34	0.53	0.32	0.50
음료 및 연초	0.08	0.49	0.03	0.09	0.02	0.04	0.10	0.0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68	0.47	0.31	0.43	0.37	0.32	0.56	0.82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4.32	4.85	5.65	6.51	12.27	11.45	9.56	14.05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3	0.08	0.01	0.02	0.03	0.06	0.11	0.07
화학제품	9.44	11.63	8.89	9.06	8.89	10.19	9.23	9.75
재료별 제조제품	16.03	22.23	14.64	16.32	15.09	20.23	16.77	15.78
기계류 및 운수장비	66.22	56.90	67.84	64.40	60.03	53.97	60.25	55.34
기타 제조제품	2.09	2.20	1.88	2.17	2.08	2.68	1.83	2.02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27	0.06	0.21	0.48	0.88	0.54	1.27	1.60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54	0.87	1.08	0.95	0.89	0.99	1.41	1.98
음료 및 연초	0.03	0.02	0.02	0.03	0.05	0.06	0.08	0.14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85	0.89	0.33	0.40	0.67	1.40	0.75	1.08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23.49	23.68	12.31	26.43	37.12	36.15	44.38	20.97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11	0.06	0.04	0.06	0.03	0.01	0.01	0.03
화학제품	12.40	11.39	11.42	15.08	10.13	8.73	8.06	8.65
재료별 제조제품	14.23	11.23	10.93	11.76	13.24	14.19	12.09	14.58
기계류 및 운수장비	44.33	48.43	60.56	29.47	34.05	34.10	27.00	47.64
기타 제조제품	2.26	1.61	1.24	1.32	2.08	2.07	1.94	2.82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76	1.83	2.07	14.51	1.75	2.30	4.28	2.10

주 : SITC Rev.3 기준, Repoter는 필리핀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6.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68,602	173,156	224,019	256,123	325,557	343,165	392,748	576,005
식료품 및 산동물	713	797	608	950	1,096	1,369	1,885	3,318
음료 및 연초	28	9	61	36	76	98	122	167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487	3,184	3,511	4,898	5,657	6,251	6,606	10,43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7,619	9,535	8,551	8,665	35,609	38,896	52,748	129,43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6	35	52	85	155	130	149	357
화학제품	27,687	25,564	27,582	30,382	43,711	45,704	53,764	69,496
재료별 제조제품	67,354	64,821	94,758	104,344	119,764	125,922	151,723	184,438
기계류 및 운수장비	46,684	54,666	71,776	86,893	94,747	98,263	98,021	147,508
기타 제조제품	14,998	14,449	17,075	19,662	23,992	25,733	26,770	29,776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7	95	46	209	750	800	960	1,083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780,481	714,948	965,207	1,346,492	1,594,597	2,108,758	2,233,286	2,777,326
식료품 및 산동물	5,781	8,763	11,323	15,228	15,841	18,728	19,846	24,544
음료 및 연초	203	217	1,268	4,726	7,633	6,296	7,560	10,338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6,544	18,433	22,136	37,514	36,874	36,545	31,602	25,403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204,447	74,067	84,721	111,356	120,171	82,425	61,439	35,851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380	256	275	260	258	416	493	487
화학제품	93,520	104,608	137,923	169,353	189,223	233,806	262,849	280,393
재료별 제조제품	239,647	239,645	343,070	424,420	419,824	488,828	548,422	564,227
기계류 및 운수장비	180,667	228,663	311,602	519,473	726,681	1,107,422	1,161,481	1,670,913
기타 제조제품	38,315	39,517	47,817	62,424	76,725	132,550	137,621	163,716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977	779	5,073	1,737	1,366	1,741	1,971	1,455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7.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42	0.46	0.27	0.37	0.34	0.40	0.48	0.58
음료 및 연초	0.02	0.00	0.03	0.01	0.02	0.03	0.03	0.0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07	1.84	1.57	1.91	1.74	1.82	1.68	1.81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4.52	5.51	3.82	3.38	10.94	11.33	13.43	22.47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1	0.02	0.02	0.03	0.05	0.04	0.04	0.06
화학제품	16.42	14.76	12.31	11.86	13.43	13.32	13.69	12.07
재료별 제조제품	39.95	37.44	42.30	40.74	36.79	36.69	38.63	32.02
기계류 및 운수장비	27.69	31.57	32.04	33.93	29.10	28.63	24.96	25.61
기타 제조제품	8.90	8.34	7.62	7.68	7.37	7.50	6.82	5.17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1	0.05	0.02	0.08	0.23	0.23	0.24	0.19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74	1.23	1.17	1.13	0.99	0.89	0.89	0.88
음료 및 연초	0.03	0.03	0.13	0.35	0.48	0.30	0.34	0.37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12	2.58	2.29	2.79	2.31	1.73	1.42	0.91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26.19	10.36	8.78	8.27	7.54	3.91	2.75	1.29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5	0.04	0.03	0.02	0.02	0.02	0.02	0.02
화학제품	11.98	14.63	14.29	12.58	11.87	11.09	11.77	10.10
재료별 제조제품	30.71	33.52	35.54	31.52	26.33	23.18	24.56	20.32
기계류 및 운수장비	23.15	31.98	32.28	38.58	45.57	52.52	52.01	60.16
기타 제조제품	4.91	5.53	4.95	4.64	4.81	6.29	6.16	5.89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13	0.11	0.53	0.13	0.09	0.08	0.09	0.05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8.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350,404	327,975	314,477	337,763	367,774	504,558	487,231	577,062
식료품 및 산동물	2,596	2,385	2,455	2,793	3,154	3,924	5,069	5,191
음료 및 연초	52	61	74	180	260	401	214	74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8,730	7,448	7,309	7,618	9,886	10,114	11,533	13,307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31,043	33,629	21,340	1,538	15,345	161,958	127,842	150,19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1	47	79	114	90	56	94	156
화학제품	61,514	57,321	51,762	54,382	71,171	68,363	70,437	77,552
재료별 제조제품	118,184	105,469	105,858	106,296	117,274	129,976	146,671	167,803
기계류 및 운수장비	108,646	104,079	108,752	148,101	134,120	112,887	100,388	135,793
기타 제조제품	19,514	17,471	16,769	16,669	16,423	16,812	24,902	26,237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73	65	79	71	52	67	82	81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793,362	599,988	889,730	1,356,450	1,395,503	1,156,818	1,141,704	787,524
식료품 및 산동물	6,842	5,486	7,424	9,135	9,611	10,822	11,793	10,616
음료 및 연초	216	152	154	302	417	363	486	687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4,137	15,558	27,862	51,208	49,077	41,319	37,362	29,303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248,924	151,763	321,889	647,873	554,474	334,222	389,626	198,32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200	207	223	300	321	251	261	181
화학제품	95,497	79,192	91,909	118,008	131,881	138,594	131,920	103,595
재료별 제조제품	202,704	168,895	224,672	294,536	345,066	319,856	309,258	240,473
기계류 및 운수장비	181,671	145,863	177,141	196,045	256,559	250,333	209,587	159,022
기타 제조제품	33,074	32,796	38,364	38,925	47,955	60,905	51,314	45,22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97	77	91	117	142	154	98	99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19.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74	0.73	0.78	0.83	0.86	0.78	1.04	0.90
음료 및 연초	0.01	0.02	0.02	0.05	0.07	0.08	0.04	0.1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49	2.27	2.32	2.26	2.69	2.00	2.37	2.31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8.86	10.25	6.79	0.46	4.17	32.10	26.24	26.0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1	0.01	0.03	0.03	0.02	0.01	0.02	0.03
화학제품	17.56	17.48	16.46	16.10	19.35	13.55	14.46	13.44
재료별 제조제품	33.73	32.16	33.66	31.47	31.89	25.76	30.10	29.08
기계류 및 운수장비	31.01	31.73	34.58	43.85	36.47	22.37	20.60	23.53
기타 제조제품	5.57	5.33	5.33	4.94	4.47	3.33	5.11	4.55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2	0.02	0.03	0.02	0.01	0.01	0.02	0.01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86	0.91	0.83	0.67	0.69	0.94	1.03	1.35
음료 및 연초	0.03	0.03	0.02	0.02	0.03	0.03	0.04	0.0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3.04	2.59	3.13	3.78	3.52	3.57	3.27	3.72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31.38	25.29	36.18	47.76	39.73	28.89	34.13	25.1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3	0.03	0.03	0.02	0.02	0.02	0.02	0.02
화학제품	12.04	13.20	10.33	8.70	9.45	11.98	11.55	13.15
재료별 제조제품	25.55	28.15	25.25	21.71	24.73	27.65	27.09	30.54
기계류 및 운수장비	22.90	24.31	19.91	14.45	18.38	21.64	18.36	20.19
기타 제조제품	4.17	5.47	4.31	2.87	3.44	5.26	4.49	5.74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0. 한국의 대필리핀 품목별 수출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335,977	253,538	295,004	297,501	337,920	321,971	393,052	442,033
식료품 및 산동물	3,248	4,400	2,542	1,962	1,527	1,887	2,336	3,611
음료 및 연초	51	40	58	107	218	372	433	61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215	1,201	1,531	2,051	1,890	1,844	2,438	3,642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23,264	18,484	21,461	17,596	42,291	33,683	42,075	69,01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4	143	26	17	83	155	262	188
화학제품	28,908	23,686	25,553	23,846	30,225	28,774	33,300	40,566
재료별 제조제품	51,946	48,405	47,389	47,759	53,611	58,817	70,438	82,755
기계류 및 운수장비	216,551	149,235	188,184	195,232	196,941	185,465	228,481	226,222
기타 제조제품	8,551	7,447	7,382	7,383	8,063	9,074	9,555	11,032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2,191	498	879	1,548	3,072	1,902	3,734	4,392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501,625	456,728	583,798	733,890	821,071	878,343	1,004,680	833,203
식료품 및 산동물	4,174	5,616	7,659	7,615	9,261	10,023	11,858	12,601
음료 및 연초	351	566	1,080	501	792	1,674	1,009	67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4,250	2,909	3,306	7,979	7,066	7,716	8,456	7,625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90,208	78,519	54,061	121,005	191,244	189,295	275,260	118,959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468	249	234	405	218	148	245	235
화학제품	51,296	54,015	69,425	88,038	74,673	63,065	61,629	52,736
재료별 제조제품	101,254	76,098	113,632	173,162	165,160	157,236	131,976	110,548
기계류 및 운수장비	231,455	218,653	317,438	315,390	345,413	411,368	476,519	477,996
기타 제조제품	12,652	16,300	12,418	14,849	21,753	29,648	29,530	44,819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5,517	3,803	4,543	4,947	5,492	8,170	8,199	7,007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1. 한국의 대필리핀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97	1.74	0.86	0.66	0.45	0.59	0.59	0.82
음료 및 연초	0.02	0.02	0.02	0.04	0.06	0.12	0.11	0.14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36	0.47	0.52	0.69	0.56	0.57	0.62	0.82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6.92	7.29	7.27	5.91	12.51	10.46	10.70	15.61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2	0.06	0.01	0.01	0.02	0.05	0.07	0.04
화학제품	8.60	9.34	8.66	8.02	8.94	8.94	8.47	9.18
재료별 제조제품	15.46	19.09	16.06	16.05	15.87	18.27	17.92	18.72
기계류 및 운수장비	64.45	58.86	63.79	65.62	58.28	57.60	58.13	51.18
기타 제조제품	2.55	2.94	2.50	2.48	2.39	2.82	2.43	2.50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65	0.20	0.30	0.52	0.91	0.59	0.95	0.99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83	1.23	1.31	1.04	1.13	1.14	1.18	1.51
음료 및 연초	0.07	0.12	0.19	0.07	0.10	0.19	0.10	0.08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0.85	0.64	0.57	1.09	0.86	0.88	0.84	0.92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17.98	17.19	9.26	16.49	23.29	21.55	27.40	14.2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9	0.05	0.04	0.06	0.03	0.02	0.02	0.03
화학제품	10.23	11.83	11.89	12.00	9.09	7.18	6.13	6.33
재료별 제조제품	20.19	16.66	19.46	23.60	20.12	17.90	13.14	13.27
기계류 및 운수장비	46.14	47.87	54.37	42.98	42.07	46.83	47.43	57.37
기타 제조제품	2.52	3.57	2.13	2.02	2.65	3.38	2.94	5.3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10	0.83	0.78	0.67	0.67	0.93	0.82	0.84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2.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32,244	38,578	47,031	51,070	67,330	69,404	92,486	139,159
식료품 및 산동물	11,600	14,507	15,356	17,939	20,527	22,456	28,890	36,202
음료 및 연초	0	2	0	2	3	12	27	1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927	1,878	2,515	3,713	5,239	6,227	8,593	12,269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284	1,686	1,908	1,468	8,054	2,516	4,651	19,75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n.a	n.a	n.a	0	n.a	1	3	19
화학제품	490	233	346	456	679	1,362	2,145	2,726
재료별 제조제품	4,952	4,370	4,697	7,634	10,946	12,332	15,958	23,517
기계류 및 운수장비	4,014	5,309	9,700	7,269	7,790	7,135	8,237	15,257
기타 제조제품	8,975	10,591	12,507	12,585	14,093	17,363	23,982	29,373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2	1	1	4	0	1	1	25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203,708	236,997	333,081	508,425	571,925	717,519	798,870	980,274
식료품 및 산동물	47,503	43,582	48,639	66,866	73,954	73,461	94,024	85,214
음료 및 연초	21	28	34	53	138	207	192	14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5,823	10,219	22,581	34,868	34,840	34,944	45,121	44,969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33,179	57,593	76,718	112,439	98,734	105,634	30,469	20,219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39	469	299	3,061	6,951	2,431	7,702	6,375
화학제품	3,729	4,618	6,226	11,382	17,927	18,751	18,783	19,462
재료별 제조제품	40,868	42,578	67,859	89,771	89,531	100,527	102,931	111,178
기계류 및 운수장비	22,381	29,061	37,031	53,429	73,409	127,724	168,895	336,900
기타 제조제품	40,064	48,848	73,692	136,545	176,293	253,820	330,753	355,80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	0	1	11	147	21	0	7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3.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35.97	37.61	32.65	35.13	30.49	32.35	31.24	26.02
음료 및 연초	0.00	0.00	0.00	0.00	0.00	0.02	0.03	0.0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5.97	4.87	5.35	7.27	7.78	8.97	9.29	8.8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0.88	4.37	4.06	2.87	11.96	3.63	5.03	14.2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n.a	n.a	n.a	0.00	n.a	0.00	0.00	0.01
화학제품	1.52	0.60	0.74	0.89	1.01	1.96	2.32	1.96
재료별 제조제품	15.36	11.33	9.99	14.95	16.26	17.77	17.25	16.90
기계류 및 운수장비	12.45	13.76	20.63	14.23	11.57	10.28	8.91	10.96
기타 제조제품	27.83	27.45	26.59	24.64	20.93	25.02	25.93	21.1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2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23.32	18.39	14.60	13.15	12.93	10.24	11.77	8.69
음료 및 연초	0.01	0.01	0.01	0.01	0.02	0.03	0.02	0.0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7.77	4.31	6.78	6.86	6.09	4.87	5.65	4.59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6.29	24.30	23.03	22.12	17.26	14.72	3.81	2.06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7	0.20	0.09	0.60	1.22	0.34	0.96	0.65
화학제품	1.83	1.95	1.87	2.24	3.13	2.61	2.35	1.99
재료별 제조제품	20.06	17.97	20.37	17.66	15.65	14.01	12.88	11.34
기계류 및 운수장비	10.99	12.26	11.12	10.51	12.84	17.80	21.14	34.37
기타 제조제품	19.67	20.61	22.12	26.86	30.82	35.37	41.40	36.30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0	0.00	0.00	0.00	0.03	0.00	0.00	0.00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528,691	447,351	472,342	521,231	636,813	818,443	884,855	911,384
식료품 및 산동물	9,599	7,850	9,179	9,984	13,275	13,628	14,298	17,748
음료 및 연초	1	3	10	11	23	13	18	1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59,125	70,268	61,390	63,899	69,871	107,072	142,004	164,220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357,934	275,453	281,622	311,033	432,652	572,255	565,205	549,239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3,232	1,361	3,345	4,013	3,160	1,858	2,738	5,805
화학제품	13,038	9,818	16,661	18,917	21,135	20,785	31,106	26,904
재료별 제조제품	60,314	57,893	66,136	69,643	61,622	59,416	65,797	79,882
기계류 및 운수장비	15,798	18,390	25,266	33,167	25,419	30,780	33,214	38,091
기타 제조제품	6,259	6,057	8,387	10,531	9,655	10,857	14,713	16,69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3,392	258	346	31	2	1,779	15,762	12,786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132,029	926,413	1,398,585	1,721,637	1,567,627	1,319,000	1,227,110	885,256
식료품 및 산동물	27,509	21,135	21,195	27,407	30,505	32,552	37,575	27,743
음료 및 연초	10	35	30	36	226	113	73	23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91,414	199,816	262,618	228,707	147,206	150,557	114,795	129,451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712,365	536,138	890,527	1,185,041	1,122,929	864,493	764,741	413,77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1,966	6,753	12,940	22,738	21,368	16,924	32,659	24,502
화학제품	39,806	30,258	38,750	40,830	41,008	34,345	40,088	39,472
재료별 제조제품	83,327	73,610	89,990	108,149	86,557	83,323	95,949	99,978
기계류 및 운수장비	46,673	38,856	52,938	61,141	57,704	59,537	55,086	59,836
기타 제조제품	18,958	19,812	29,578	47,530	59,963	77,155	86,101	90,191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	0	19	58	160	2	42	78

주 : SITC Rev.3 기준, Repo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5.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1.82	1.75	1.94	1.92	2.08	1.67	1.62	1.95
음료 및 연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1.18	15.71	13.00	12.26	10.97	13.08	16.05	18.02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67.70	61.57	59.62	59.67	67.94	69.92	63.88	60.26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61	0.30	0.71	0.77	0.50	0.23	0.31	0.64
화학제품	2.47	2.19	3.53	3.63	3.32	2.54	3.52	2.95
재료별 제조제품	11.41	12.94	14.00	13.36	9.68	7.26	7.44	8.76
기계류 및 운수장비	2.99	4.11	5.35	6.36	3.99	3.76	3.75	4.18
기타 제조제품	1.18	1.35	1.78	2.02	1.52	1.33	1.66	1.83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64	0.06	0.07	0.01	0.00	0.22	1.78	1.40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2.43	2.28	1.52	1.59	1.95	2.47	3.06	3.13
음료 및 연초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6.91	21.57	18.78	13.28	9.39	11.41	9.35	14.62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62.93	57.87	63.67	68.83	71.63	65.54	62.32	46.7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06	0.73	0.93	1.32	1.36	1.28	2.66	2.77
화학제품	3.52	3.27	2.77	2.37	2.62	2.60	3.27	4.46
재료별 제조제품	7.36	7.95	6.43	6.28	5.52	6.32	7.82	11.29
기계류 및 운수장비	4.12	4.19	3.79	3.55	3.68	4.51	4.49	6.76
기타 제조제품	1.67	2.14	2.11	2.76	3.83	5.85	7.02	10.19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1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6. 한국의 대필리핀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81,475	181,902	186,735	196,398	211,996	231,603	218,656	243,824
식료품 및 산동물	14,051	14,833	15,072	18,926	19,446	24,896	27,766	32,340
음료 및 연초	79	53	143	207	403	2,069	1,908	2,403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4,480	4,521	4,719	4,245	8,083	9,677	15,144	17,65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2,264	5,605	4,373	4,901	2,942	30	0	84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62	1,077	348	361	1,458	2,592	2,093	221
화학제품	2,238	2,317	2,076	2,203	2,890	3,261	2,531	3,304
재료별 제조제품	10,280	11,360	9,976	13,608	13,198	17,810	21,722	27,860
기계류 및 운수장비	143,998	139,701	146,976	147,011	157,066	165,034	141,659	148,450
기타 제조제품	3,094	1,676	2,140	3,850	5,088	5,814	5,278	9,794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930	760	12	1,085	1,420	420	555	954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309,947	265,162	348,810	357,147	328,394	370,623	333,299	325,123
식료품 및 산동물	32,310	29,692	36,311	42,774	45,740	51,247	54,580	49,552
음료 및 연초	6,003	6,972	8,143	9,334	8,718	5,858	8,497	8,506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4,942	11,569	25,737	43,753	36,384	38,195	33,829	29,904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2,014	16,316	56,405	64,738	59,456	48,740	38,926	23,27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842	733	686	230	190	183	221	585
화학제품	5,279	3,931	7,616	10,541	7,266	6,608	7,171	7,255
재료별 제조제품	69,084	40,380	31,890	18,332	13,972	36,432	21,968	28,712
기계류 및 운수장비	149,166	148,564	173,091	154,859	139,896	159,212	146,648	151,185
기타 제조제품	9,110	6,537	8,883	12,296	16,452	23,924	21,282	25,662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196	468	48	291	320	223	177	493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7. 한국의 대필리핀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7.74	8.15	8.07	9.64	9.17	10.75	12.70	13.26
음료 및 연초	0.04	0.03	0.08	0.11	0.19	0.89	0.87	0.99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47	2.49	2.53	2.16	3.81	4.18	6.93	7.24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1.25	3.08	2.34	2.50	1.39	0.01	0.00	0.35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3	0.59	0.19	0.18	0.69	1.12	0.96	0.09
화학제품	1.23	1.27	1.11	1.12	1.36	1.41	1.16	1.36
재료별 제조제품	5.66	6.25	5.34	6.93	6.23	7.69	9.93	11.43
기계류 및 운수장비	79.35	76.80	78.71	74.85	74.09	71.26	64.79	60.88
기타 제조제품	1.70	0.92	1.15	1.96	2.40	2.51	2.41	4.02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51	0.42	0.49	0.55	0.67	0.18	0.25	0.39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10.42	11.20	10.41	11.98	13.93	13.83	16.38	15.24
음료 및 연초	1.94	2.63	2.33	2.61	2.65	1.58	2.55	2.62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8.05	4.36	7.38	12.25	11.08	10.31	10.15	9.2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3.88	6.15	16.17	18.13	18.11	13.15	11.68	7.16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27	0.28	0.20	0.06	0.06	0.05	0.07	0.18
화학제품	1.70	1.48	2.18	2.95	2.21	1.78	2.15	2.23
재료별 제조제품	22.29	15.23	9.14	5.13	4.25	9.83	6.59	8.83
기계류 및 운수장비	48.13	56.03	49.62	43.36	42.60	42.96	44.00	46.50
기타 제조제품	2.94	2.47	2.55	3.44	5.01	6.46	6.39	7.89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39	0.18	0.01	0.08	0.10	0.06	0.05	0.15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8.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액(2000년부터)

(단위 : 십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722,675	1,504,309	1,624,661	1,938,173	2,538,446	2,844,182	3,254,572	3,714,771
식료품 및 산동물	24,024	22,053	21,146	21,645	24,459	24,681	23,540	26,353
음료 및 연초	2,115	2,619	3,462	4,467	4,904	5,208	6,061	6,82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8,289	15,858	16,344	20,006	24,923	28,394	33,143	41,888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93,755	80,097	65,516	69,020	105,314	157,094	209,204	246,309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70	172	212	233	235	190	241	302
화학제품	137,837	125,238	137,620	169,356	231,257	277,452	318,061	375,401
재료별 제조제품	303,801	267,895	269,930	301,296	369,540	410,232	465,592	520,413
기계류 및 운수장비	1,002,752	866,943	995,978	1,211,422	1,599,912	1,734,916	1,923,598	2,167,359
기타 제조제품	124,325	112,439	104,660	120,634	147,658	202,920	266,302	322,324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5,607	10,994	9,792	20,095	30,245	3,093	8,830	7,600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4,220,035	3,635,311	4,663,806	5,552,089	5,478,544	5,596,186	5,730,748	5,268,972
식료품 및 산동물	30,466	32,472	39,204	48,600	49,622	48,708	49,910	47,164
음료 및 연초	7,924	8,313	10,116	12,161	13,322	12,538	14,650	16,357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51,049	39,891	56,295	82,222	74,438	67,069	64,210	54,846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384,547	237,860	325,797	530,869	574,922	541,126	526,706	331,79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02	311	560	879	1,018	731	810	882
화학제품	427,052	374,123	489,480	607,040	612,817	661,609	677,260	589,169
재료별 제조제품	595,599	481,145	604,301	767,488	757,968	716,866	756,522	672,237
기계류 및 운수장비	2,337,149	2,063,712	2,639,185	3,000,944	2,878,409	3,056,464	3,151,690	3,106,529
기타 제조제품	371,965	368,696	468,441	469,821	484,403	476,824	477,392	439,863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3,783	28,788	30,428	32,065	31,626	14,250	11,597	10,128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29.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1.39	1.47	1.30	1.12	0.96	0.87	0.72	0.71
음료 및 연초	0.12	0.17	0.21	0.23	0.19	0.18	0.19	0.18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06	1.05	1.01	1.03	0.98	1.00	1.02	1.13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5.44	5.32	4.03	3.56	4.15	5.52	6.43	6.63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화학제품	8.00	8.33	8.47	8.74	9.11	9.76	9.77	10.11
재료별 제조제품	17.64	17.81	16.61	15.55	14.56	14.42	14.31	14.01
기계류 및 운수장비	58.21	57.63	61.30	62.50	63.03	61.00	59.10	58.34
기타 제조제품	7.22	7.47	6.44	6.22	5.82	7.13	8.18	8.68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91	0.73	0.60	1.04	1.19	0.11	0.27	0.20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0.72	0.89	0.84	0.88	0.91	0.87	0.87	0.90
음료 및 연초	0.19	0.23	0.22	0.22	0.24	0.22	0.26	0.3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1.21	1.10	1.21	1.48	1.36	1.20	1.12	1.04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9.11	6.54	6.99	9.56	10.49	9.67	9.19	6.3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01	0.01	0.01	0.02	0.02	0.01	0.01	0.02
화학제품	10.12	10.29	10.50	10.93	11.19	11.82	11.82	11.18
재료별 제조제품	14.11	13.24	12.96	13.82	13.84	12.81	13.20	12.76
기계류 및 운수장비	55.38	56.77	56.59	54.05	52.54	54.62	55.00	58.96
기타 제조제품	8.81	10.14	10.04	8.46	8.84	8.52	8.33	8.35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33	0.79	0.65	0.58	0.58	0.25	0.20	0.19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30.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2000년부터)

(단위 : 십만 달러)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604,793	1,410,971	1,521,244	1,788,258	2,244,609	2,612,356	3,093,795	3,568,417
식료품 및 산동물	64,967	67,893	76,207	83,311	92,804	99,560	113,579	136,290
음료 및 연초	5,292	5,640	6,939	6,296	5,530	5,403	5,894	7,556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99,122	90,523	91,785	101,465	135,353	153,538	196,645	240,713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380,766	340,693	324,312	386,297	502,785	675,009	867,067	965,036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2,860	2,693	3,393	3,893	5,435	6,189	6,292	8,441
화학제품	135,175	129,416	141,563	164,820	206,545	245,023	275,730	323,369
재료별 제조제품	182,909	166,838	192,416	223,696	308,252	358,494	423,139	519,291
기계류 및 운수장비	590,789	479,110	533,134	626,552	753,616	825,334	927,176	1,075,703
기타 제조제품	120,215	111,666	133,586	162,340	198,529	234,343	266,840	274,913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22,699	16,499	17,909	29,589	35,759	9,463	11,433	17,103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4,352,705	3,230,817	4,252,080	5,244,052	5,195,756	5,155,730	5,255,570	4,365,357
식료품 및 산동물	164,055	134,384	163,351	219,002	213,689	218,943	233,257	227,577
음료 및 연초	8,592	7,628	8,598	8,606	9,277	10,060	10,583	10,486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282,721	203,101	306,322	422,627	382,668	345,242	344,418	264,198
광물성 연료, 운환유 및 관련물질	1,425,148	916,692	1,225,962	1,736,737	1,861,898	1,804,313	1,757,180	1,034,196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2,268	9,676	11,940	16,886	15,996	12,985	14,467	11,796
화학제품	365,266	313,851	409,606	479,691	470,906	466,650	471,948	432,942
재료별 제조제품	649,835	432,504	561,426	642,311	568,274	551,413	580,390	503,564
기계류 및 운수장비	1,146,313	969,503	1,233,908	1,333,227	1,278,842	1,347,500	1,417,522	1,454,566
기타 제조제품	285,545	232,238	315,235	367,801	378,854	384,555	412,187	412,917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2,963	11,239	15,732	17,163	15,351	14,069	13,617	13,116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

부록 31.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입액 구성비(2000년부터)

(단위 :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4.05	4.81	5.01	4.66	4.13	3.81	3.67	3.82
음료 및 연초	0.33	0.40	0.46	0.35	0.25	0.21	0.19	0.2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6.18	6.42	6.03	5.67	6.03	5.88	6.36	6.75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23.73	24.15	21.32	21.60	22.40	25.84	28.03	27.0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18	0.19	0.22	0.22	0.24	0.24	0.20	0.24
화학제품	8.42	9.17	9.31	9.22	9.20	9.38	8.91	9.06
재료별 제조제품	11.40	11.82	12.65	12.51	13.73	13.72	13.68	14.55
기계류 및 운수장비	36.81	33.96	35.05	35.04	33.57	31.59	29.97	30.15
기타 제조제품	7.49	7.91	8.78	9.08	8.84	8.97	8.63	7.70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1.41	1.17	1.18	1.65	1.59	0.36	0.37	0.48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상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 및 산동물	3.77	4.16	3.84	4.18	4.11	4.25	4.44	5.21
음료 및 연초	0.20	0.24	0.20	0.16	0.18	0.20	0.20	0.24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	6.50	6.29	7.20	8.06	7.37	6.70	6.55	6.05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32.74	28.37	28.83	33.12	35.83	35.00	33.43	23.69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28	0.30	0.28	0.32	0.31	0.25	0.28	0.27
화학제품	8.39	9.71	9.63	9.15	9.06	9.05	8.98	9.92
재료별 제조제품	14.93	13.39	13.20	12.25	10.94	10.70	11.04	11.54
기계류 및 운수장비	26.34	30.01	29.02	25.42	24.61	26.14	26.97	33.32
기타 제조제품	6.56	7.19	7.41	7.01	7.29	7.46	7.84	9.46
미분류 상품 및 거래물	0.30	0.35	0.37	0.33	0.30	0.27	0.26	0.30

주 : SITC Rev.3 기준, Reporter는 한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작성